

5世紀 韓日關係史

—《宋書》倭國傳의 檢討—

盧重國

【國文抄錄】	
I. 머리말	
II. 研究史 검토	
1. 韓國學界의 연구 동향	
2. 日本學界의 연구 동향	
3. 中國學界의 견해	
III. 倭王 珍과 濟의 自稱號에 나오는 6國	
1. 宋의 加號에 加羅가 插入된 背景	
2. 秦韓과 慕韓 문제	
IV. 東征·西服·渡平海北과 軍號·郡號	
1. 東征·西服·渡平海北의 時期	
2. 渡平海北의 對象 地域	
3. 軍號와 郡號	
V. 邊隸의 實體와 倭王 濟·興의 ‘奄喪’	
1. 邊隸의 實體	
2. 濟·興의 奄喪과 그 背景	
VI. 倭王 武의 都督諸軍事號와 高句麗 攻擊 計劃	
1. 七國諸軍事號 自稱과 六國諸軍事號	
2. 武의 高句麗 攻擊 計劃	
VII. 百濟의 對倭影響	
1. 倭의 對中國 交涉 再開	
2. 府官制·私假制의 實施	
3. 蓋鹵王의 上表文과 倭王 武의 上表文의 比較	
VIII. 《三國史記》에 보이는 百濟·新羅와 倭의 關係	
1. 百濟와 倭의 關係	
2. 新羅와 倭의 關係	
IX. 倭王의 自稱號의 性格·맺음말에 대신하여	
【文獻目錄】	
【史料集成】	

【國文抄錄】

5세기 한일관계사

盧重國

본고는 《宋書》倭國傳에 나오는 古代韓日關係史와 관련된 기사들을 새로운 시각

에서 검토하여 왜가 한반도 남부지역을 지배하였다고 하는 이른바 ‘任那經營說’이 성립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韓半島諸國이 포함된 왜왕의 自稱號는 대외적으로는 백제가 중심이 된 신라·가야·왜 연합이라고 하는 對高句麗 外交網에 참여한 왜가 연합세력의 主軸을 놓고 백제와 경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칭한 것이며, 대내적으로 일본열도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韓半島諸國과의 교역권을 장악하자 이를 諸豪族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칭하면서 송으로부터 인정받아 信賴性을 附加하려고 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諸國이 포함된 차칭호는 倭가 韓半島諸國을 지배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이다.

大和王權의 日本列島 統合은 倭王 武의 祖禰=祖父인 珍과 濟의 東征·西服·渡平海北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시기는 대략 430년에서 460년대이다. 이는 5세기 전반까지 일본열도는 아직 하나로 통합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왜가 4세기 후반 경에 한반도 남부지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설이 성립될 수 없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渡平海北의 海北을 한반도로 보아왔다. 그러나 《三國志》 東夷傳에 낙랑·대방군의 使臣이 邪馬臺國까지 가는 行路가 南으로 되어 있고 또 《日本書紀》 神代 上에 나오는 海北은 구주를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海北의 ‘海’는 ‘瀨戶內海’이며 ‘海北’은 ‘九州地域’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渡平海北을 근거로 왜가 한반도로 진출하여 군사적으로 정복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고구려가 抄略한 邊隸의 實體에 대해 종래에는 백제로 보아왔다. 그러나 이 ‘邊隸’는 倭가 宋에 대해 自國을 낮추어 부른 말로서 고구려에 의해 抄略된 邊隸는 송으로 가는 왜의 使臣團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邊隸를 百濟로 보아 왜가 고구려에 대항하면서 한반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5세기에 백제와 왜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지 결코 支配-被支配의 관계는 아니었다. 한편 왜는 신라를 빈번히 侵掠한 것으로 나오지만 모두 격퇴되었다. 또 신라는 왜의 근거지인 對馬島와 倭의 本土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는 왜가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지배한 적이 한번도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어: 諸軍事號, 安東將軍, 倭王武, 倭王珍, 邊隸, 宋書 倭國傳, 平西將軍

I. 머리말

對外關係는 기본적으로 各國의 支配세력들이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自國의 實利를 추구하면서 國內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5세기의 東아시아 세계는 변화와 격동의 시기였다. 중국대륙에서는 이민족의 침략으로 5胡16國시대를 거쳐 南北朝가 대립하고 있었고, 한반도에서는 고구려·백제·신라가 和好와 對立을 되풀이하면서 分立되어 있었으며, 日本列島 내에서는 大和政權이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한 채 각 지역의 유력한 호족들과 豪族聯合政權을 구성하고 있었고, 몽고고원에는 柔然이 일어났고, 서쪽 靑海 일대에는 吐谷渾이 대두하여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따라서 어느 한 나라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느 한 나라의 움직임은 다른 나라에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였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連衡과 對결을 거듭하였다.¹⁾ 이처럼 동아시아 세계가 여러 세력들이 分立하여 다원적인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전개된 各國의 對外관계는 複合的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국제상황 속에서 5세기에 전개된 韓日關係史를 살펴보고자 할 때 핵심적인 자료의 하나가 《宋書》 倭國傳이다. 여기에는 왜왕 讚, 珍, 齊, 興, 武라고 하는 이른바 倭五王이 연이어 송에 사신을 보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진은 438년에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을 자칭하면서 이 自稱號를 정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송에 요청하였지만 송은 ‘安東將軍倭國王’만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451년에 송은 齊에게 백제가 빠지고 加羅가 들어간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倭國王’이란 작호를 加號해 주었다. 한편 武는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을 자칭하였고 478년에는 ‘開府儀同三司’까지 자칭하였다. 그렇지만 송은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의 작호만 정식으로 승인해 주었다. 이렇게 송으로부터 將軍號와 王號를 받음으로써 왜는 이제 중국 중심의 이른바 朝貢·冊封體制 속에 편입되게 되었다.

《송서》 왜국전에 수록된 여러 기사 가운데 한일관계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왜왕이 자칭한 都督諸軍事號에 倭 이외에 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이 들어있다는 것과 송은 백제를 제외한 六國諸軍事號만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1) 盧泰敦,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354~355

‘使持節都督諸軍事’는 황제의 信標인 符節을 받아 독자적으로 군대를 統率하여 일정 地域의 軍事權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²⁾ 그렇다고 하면 倭王은 倭國뿐만 아니라 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에 대해서도 軍事權을 행사하려 하였고, 송은 백제를 제외한 나머지 6국에 대해 倭의 軍事權 행사를 인정해 준 것이 된다.

중국 주변 제국의 왕들이 중국왕조로부터 받은 都督諸軍事號 및 將軍號는 대외적으로 중국 중심의 책봉체제 내에서 각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대내적으로 국왕의 존재가 여타 지배세력들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작호가 가지는 대내적인 성격보다는 대외적인 측면의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倭王이 東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주로 논의해 왔다. 그래서 日人史學者들은 《송서》 왜국전은 제3국의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기사에 대해 5세기의 왜는 한반도 남부지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였다’거나, ‘지배하려고 하였다’거나 또는 ‘지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³⁾ 이러한 해석은 暗默의로 왜가 4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남부 지역을 지배하였다는 이른바 ‘任那日本府說’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倭가 任那를 經營하였다고든가 왜가 한반도 남부제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였다’거나, ‘지배하려고 하였다’거나 하는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송서》 倭國傳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는 종래의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작호가 가지는 대내적인 측면에서의 성격과 관련하여 《송서》 倭國傳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倭王 濟가 宋으로부터 加號받은 6國諸軍事號에는 珍의 自稱號에 들어있지 않은 加羅가 포함된 과정을 검토하고 또 이미 망해버린 秦韓과 慕韓이 六國 속에 포함된 배경을 정리하여 자칭호가 가지는 恣意性을 밝힐 것이다. 둘째로 東征·西服·渡平海北을 이룩한 祖禰는 武의 祖와 父이므로 5세기 전반 경까지 일본열도는 통일 왕국으로 통합되지 못하였다는 것과 渡平海北의 대상이 通說처럼 韓半島諸國이 아니라 이때의 海는 瀨戶內海이고 평정의 대상은 九州 일대의 세력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셋째로 濟와 興의 갑작스런 죽음이 고구려 공격 계획과 연관성이 있으며 武의 上表文에 나오는 邊隸는 通說처럼 백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체를 가리키는 것임을 밝힐 것이다. 넷째로 倭王이 중국으로부터 작호를 받은 후 幕府를 개설하여 屬官을

2)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吉川弘文館) 508~509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塙書房) 219~220

3)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吉川弘文館) 352~354, 514~515

둔 府官制와 자신의 신하들에게 임시로 관직을 수여한 후 송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는 私假制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이 제도가 백제의 영향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힐 것이다. 다섯째로는 《삼국사기》의 기사를 중심으로 5세기에 백제와 왜 사이에는 화평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결코 지배·복속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과 왜가 비록 신라의 변경을 공격하였지만 모두 擊退되었으며 신라는 도리어 왜의 본토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하였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기왕에 통설화되어 온 사실들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가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적 비약이 심하거나 증거자료의 제시가 불충분한 면도 있을 것이다. 이런 미비한 점은 질정을 받아 수정·보완할 것을 기약하는 바이다.

II. 연구사 검토

1. 韓國學界의 연구 경향

우리나라 학자로서 倭五王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朝鮮後期の 실학자인 韓致齋이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海東繹史》의 다음의 기사이다.

倭國在百濟新羅東南水陸三千里於大海中 依山島而居 … 陸行一月至邪馬臺國 卽倭王所都也 鎮書謹按倭王武上宋順帝表曰 臣驅率所統 歸崇天極 … 蓋倭自漢時 驛通中國 歷晉宋世有朝獻 而其行必由我國 不以異境而路梗者 蓋與百濟相結故也⁴⁾

이 기사에서 왜가 대대로 晉·宋에 朝獻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 나라를 경유하였는데 국경을 달리하면서 길이 막히지 않은 것은 백제와 서로 結好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은 卓見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우리 학계의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倭五王 문제는 비록 韓國古代史와 관련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日本古代史의 問題이므로 韓國古代史學界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1980년대까지 日本古代史를 체계적으로 전공하는 학자들을 거의 배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4) 《海東繹史》 권제40 交聘志8 附 通倭海路

점이다. 이처럼 관심도 적었고 專門研究者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60년대에 와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 북한학계의 金錫亭이다. 그는 日本列島에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移住民들에 의해 여러 分國들이 설치되었고 야마토 倭王國의 日本列島 統一過程은 日本列島에 내에 있던 三韓·三國의 分國들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⁵⁾ 이러한 견해는 종래 日人學者들의 연구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북한학계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되어 있다. 김석형의 이 연구는 남한학계 뿐만 아니라 일본학계에서도 큰 反響을 일으켜 일본학계에서는 이를 반박하고자 하는 여러 견해들이 나왔다.⁶⁾

南韓學界에서는 1970년대에 千寬宇에 의해 새로운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는 《日本書紀》 神功紀 49년조의 기사를 분석한 후 任那日本府 관계 기사는 그 주체를 百濟로 하면 順理的으로 解釋된다고 보고 任那日本府를 가야지역에 두어진 百濟軍司馬部라고 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倭五王의 칭호에 진한과 그 후신인 신라, 동일한 실체인 任那와 加羅가 중복되어 나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畿内の 왜는 527-528년 사이에 일어난 磐井의 난에서 보듯이 북구주 왜와의 통일도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왜왕 武의 上表文에 나오는 ‘渡平海北九十五國’은 왜가 한반도 남부지역을 평정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왜군이 백제의 원병으로 출병하여 낙동강방면으로부터 황해도 방면으로 북상하였을 때의 경과 지점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⁷⁾ 이 가운데 《日本書紀》 神功紀 49년조의 加耶七國 평정의 주체로 나오는 왜를 백제로 바꾸어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이후 남한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에 들어와 日本에 유학하여 日本古代史 또는 古代韓日關係史를 연구한 전문 연구자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倭五王에 대한 연구성과도 이전에 비해 점차 많아지게 되었다. 여기서는 倭五王 문제를 직접 다룬 연구성과들에 대해 정리해 두기로 한다.

延敏洙는 大和朝廷의 直轄領인 屯倉이 西日本 각 지역에 설치된 것은 6세기 전반을 올라가지 않고, 중앙 정부에서 각 지역의 國에 國司를 파견한 것은 7세기 중엽의 일이므로 5世紀代에는 出雲, 吉備 지역에 지역정권이 각각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5) 김석형, 1963 <삼한·삼국의 일본열도 분국에 대하여> 《역사과학》 제1호

6) 日本學界의 反響과 이를 반박하는 여러 견해에 대해서는 笠井倭人, 1977 《研究史 倭の五王》(吉川弘文館) 184~193 參照

7) 천관우, 1991 《가야사연구》(일조각) 33~36, 212~216

그리고 倭王 武의 上表文에 ‘渡平海北九十九國’은 비록 왜병의 군사활동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반도의 지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외교적 修辭로서 허위와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왜왕이 宋에 요구한 將軍號가 백제가 받은 鎮東大將軍보다 낫다는 것은 倭王 스스로가 백제왕 보다 下位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며, 백제가 포함된 도독제군사호를 근거로 왜가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의문이라고 하였다.⁸⁾

李根雨는 畿內大和勢力은 6세기초 繼體朝 이후에야 국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므로 任那日本府는 大和勢力과는 아무런 실제적 관련을 갖지 않으며, 任那日本府는 야마토왜의 軍政機關이나 支配機關이 아니라 九州 倭王朝가 한반도로부터 선진문물 받아들이는 文物수용의 通路의 기능을 한 交易機關으로 파악하였다.⁹⁾

李在碩은 작호의 실효성 여부는 중국 왕조로부터 작호의 승인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 작호를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전제하였다. 따라서 왜왕이 백제에 대한 제군사호 작호를 승인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왜왕이 자칭한 칭호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¹⁰⁾

崔在錫은 坂元義種이나 鈴木英夫 등의 견해를 소개한 후 일본학계의 任那經營說의 시각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였다. 동시에 그는 5세기에 大和倭의 강역은 大和지역에 불과하였으므로 倭五王은 大和倭王이 아니라 對馬島를 포함한 九州에 존재한 倭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倭五王 기사에 보이는 自稱號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도리어 백제가 大和倭 經營팀을 파견하여 大和倭를 經營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¹⁾

한편 洪元卓은 신라나 가야연맹은 그때까지만 해도 劉宋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고 또 마한과 진한을 구성하고 있던 대부분의 성읍국가들 가운데 가야연맹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게 된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백제와 신라에 정복되어 독립된 정치적 실체가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劉宋의 통치자들은 왜가 제시한 외교상으로 서로 모르는 관계에 있는 국가들 명단 가운데 백제만을 분명하게 제외시켜 놓은 다음에는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馬韓’이라는 칭호 자체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¹²⁾

8) 延敏洙, 1998 《고대한일관계사연구》 (해안) 121~130

9) 李根雨, 1985 <日本書紀 任那關係 記事에 관하여> 《청계사학》 2집

10) 李在碩, 2001 <5세기 왜왕의 대남조외교와 통교단절의 요인> 《일본역사연구》 13집(일본역사연구회), 14~17

11) 崔在錫, 1999 <中國史書에 나타난 5세기 ‘倭五王’ 記事에 대하여> 《아세아연구》 102호

12) 洪元卓, 1994 《百濟와 大和日本の 紀元》 (구다라인터내셔널) 338

2. 日本學界의 연구 동향

倭五王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학계에서는 이미 1973년에 연구사를 정리한 책이¹³⁾ 나올 정도로 많은 연구성과들이 나왔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보면 대화왕권이 한반도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고, 그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덜 강조한 견해도 있다. 여기서는 한반도에 대한 왜의 군사적 영향력을 강조한 주요 연구성과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두기로 한다.

藤間生大는 4세기에 이미 대화왜왕은 일본열도를 통합한 통일국가를 달성함과 동시에 남한을 정복할 정도의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왜의 五王은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에서도 중국인 歸化人을 기용하였으며 왜는 한반도에 진출하여 언제나 한반도 남반부의 군사권 소유와 안동대장군호의 획득을 송에 요구하고 있었다고 하였다.¹⁴⁾

坂元義種은 4~5세기에倭는 남조의 책봉을 받고 신라와 백제로부터 복종의 증거로 質을 취하였으므로 왜국과 신라·백제와의 관계는 상하 服屬관계에 있었으며 왜왕의 자칭호와 왜왕이 신하에게 假授한 장군호는 왜왕의 백제왕에 대한 군사적 우위성을 여실히 말해주며 그 활동의 場은 남조선일대에 미쳤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¹⁵⁾ 또 왜왕의 자칭호는 실질을 동반하지 않은 허공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왜왕 珍과 濟가 바란 것은 왜국내의 군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왜국왕과 국내의 군사권 그리고 남조선에 있어서의 군사적 지배권이었으며 이는 興과 武도 마찬가지로었다고 하였다.¹⁶⁾ 나아가 그는 백제가 자국의 군사적 지배권을 왜국이 송조에 구하는 것을 돕지 않았다고 하면서 倭國王의 都督百濟諸軍事 등의 官號 요청은 결국 백제왕과는 별개의 것으로 행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¹⁷⁾

平野邦雄은 濟의 451년의 號除爵에 의해 고구려의 ‘使持節散騎常侍督平營二州諸軍事’와 백제의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와 나란히 당시 조선에서의 ‘軍事領域地圖’는 일응 완결된 것이라 하였다. 또 왜왕은 백제를 추가하는 것은 인가를 받지 못하였지만

13) 笠井倭人, 1977 《研究史 倭の五王》(吉川弘文館)

14) 藤間生大, 1968 《倭の五王》(岩波新書) 106~107, 134~135 참조

15)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吉川弘文館) 202~203, 354

16) 坂元義種, 1974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大王の成立をめぐって-> 《古代の日本と朝鮮》(學生社) 97~98

17) 坂元義種, 1981 <南北朝諸文獻に見える朝鮮國と倭國>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第3卷(學生社) 302

현실로는 신라나 任那·加羅도 모두 왜의 軍事領域에 편입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任那 이하가 자칭호에서 제외되는 것이 顯在化하는 것은 479년 加羅王 荷知가 輔國將軍에 除授되었을 때라고 하였다.¹⁸⁾

山尾幸久는 倭王의 都督諸軍事號에 포함되어 있는 조선의 지명은 실제로 王 혹은 首長을 통해 軍丁·軍資의 徵發이 가능한 유력한 나라이고, 왜왕의 官號는 南部朝鮮의 徵兵가능한 全軍을 지휘하여 고구려에 대항할 수 있는 最高司의 지위를 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왜왕의 자칭호는 고구려의 진출로 말미암아 交易에 의한 輸入이 곤란하게 된 시기에 있어서의 對應策과 倭王의 부하 장군들의 조선반도 남부에서의 潜在的 軍事行動權의 요구를 집약해서 대표하는 지위라고 하였다.¹⁹⁾

鬼頭清明은 왜의 五王이 자칭한 諸軍事號 속에 보이는 국명에서 推察하면 倭五王의 권력은 조선반도의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武의 상표문의 ‘渡平海北九十五國’에 의거하면 倭勢力이 군사적으로 조선반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하여도 좋다고 하였다.²⁰⁾

鈴木英夫는 5세기 大和倭는 이미 일본열도를 통합한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국가로서 동아시아의 국제적 무대에 등장하였으며 武의 상표문 가운데 ‘東征毛人五十五國 西服衆夷六十六國 渡平海北九十五國’에서 東은 현재의 關東지역, 西는 九州지역, 海北은 韓半島를 지칭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祖禰의 시기에 왜가 한반도의 九十五國을 평정한 것은 과거에 왜왕의 한반도에서의 軍事活動을 示唆하는 것이다. 그러나 武의 시대에 韓半島南部의 都督號를 自稱하고 있어도 倭王의 現實의 支配를 반영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²¹⁾

笠井倭人은 珍王의 自稱號에 보이는 使持節이나 都督諸軍事號는 珍이 고구려와 同格으로 되는 것에 의해 고구려 領域 밖에 있는 한반도 전반의 軍事的 支配의 보증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의해 한반도의 정세가 크게 흔들리는 속에서 倭五王의 熱烈한 바램은 무엇보다도 중국 왕조의 권위에 의해 남한지역에 대한 既存權益을 확보하는 것에 있었다고 하였다.²²⁾

18) 平野邦雄, 1980 <金石文の史實と倭五王の通交> 《岩波講座 日本歴史》 1 原始および古代 1 (岩波書店) 254~256

19)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221~223

20) 鬼頭清明, 1994 《大和朝廷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33~34, 38~39

21) 鈴木英夫, 1996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93, 160

22) 笠井倭人, 2000 《古代の日朝關係と日本書紀》 (吉川弘文館) 312~313

3. 中國 學界의 見解

倭五王에 대한 中國人 연구자들의 見解로는 王健群과 朴眞奭의 견해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한국학계에 와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이들의 발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王健群은 왜왕 珍, 濟, 武가 한반도남부의 諸國에 대한 軍事支配權을 요구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지만 이는 개인적인 요구에 불과하며 사실로서 百濟·新羅·加羅 등을 포함한 自稱號를 반복해서 요청한 것 자체가 왜가 韓半島南部를 통치한 사실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당시 한반도 남부에는 오직 新羅·百濟·任那加羅만이 존재하였는데도 任那와 加羅를 별개의 國으로 본 것은 倭五王이 한반도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이 상황에서 支配權 문제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²³⁾

朴眞奭은 광개토태왕비문에 보듯이 391년에서 407년 사이에 왜는 고구려에 의해 큰 타격을 받고 韓半島에서 驅逐되었으므로 425년의 왜왕의 自稱號는 宋皇帝의 威望을 빌어 신라나 백제에 압력을 가하여 전쟁에서 얻지 못한 것을 얻으려고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또 478년에 武가 받은 冊封號에 百濟가 빠져있고 또 그 爵號는 백제왕이 받은 것보다 높지 않은 것은 倭가 韓半島 남부에서 통치권을 얻지 못하였음을 잘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武의 上表文에 武의 할아버지와 아버지(祖禰)가 ‘東征毛人五十五國 西服衆夷六十六國 渡平海北九十五國’하였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 기사는 440년대에서 470년대에 걸쳐서 비교적 큰 규모의 통일사업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지만 반면에 이전까지 倭는 여전히 많은 소국으로 分散되어 소국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통일국가의 출현이 없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일본열도에 대한 통일도 완성하지 못하고 소국으로 분산되어 있는 왜가 바다를 건너 신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를 統治下에 넣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²⁴⁾

23) 王健群, 1992 <임나일본부와 왜의 오왕> 《가야문화》 5집

24) 朴眞奭, 1993 《好太王碑와 古代朝日關係研究》(서광학술자료사) 248~290, 378~403

Ⅲ. 倭王 珍과 濟의 自稱號에 나오는 6國

1. 宋의 加號에 加羅가 插入된 背景

《송서》 왜전에 의하면 송에 사신을 보낸 최초의 왜왕은 讚이다. 그는 421년과 425년에 송에 사신을 보냈다. 讚이 죽은 후 동생 珍이 왕위를 이었다. 珍은 438년에 송에 사신을 파견하여 自稱한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을 승인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宋은 諸軍事號는 인정하지 않고 ‘安東將軍 倭國王’만 승인해 주었다. 珍의 뒤를 이은 濟가 즉위하자 송은 443년에 ‘安東將軍 倭國王’을 除授하였고 451년에는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를 加號해 줌과 동시에 濟가 자신의 신하 二十三人에게 假授한 ‘軍號’와 ‘郡號’를 승인해 주었다.

珍의 自稱號와 濟가 宋으로부터 받은 加號를 비교해 보면 6國이라는 숫자는 공통이지만 加號에는 百濟가 빠지고 加羅가 첨가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이 문제에 대해 종래의 연구에서는 송이 왜왕에게 가호를 줄 때 왜왕이 자칭한 6국 가운데 백제를 빼고 加羅를 넣었다고 보는 것이²⁵⁾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송은 이때까지 加羅와 접촉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加羅라는 나라의 존재를 알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송이 전혀 알지 못하는 加羅를 임의적으로 넣어 加號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濟가 加羅를 포함한 都督七國諸軍事를 自稱한 것에서 송이 백제를 뺀 것으로²⁶⁾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濟가 가라가 포함된 7國諸軍事號를 칭하였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므로 이 견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百濟 대신 加羅가 加號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또 송은 어찌하여 加羅가 들어간 加號를 倭王 濟에게 수여한 것일까. 이 문제는 송이 왜왕에게 작호를 수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宋書》 倭國傳에서 작호의 제수 절차를 보면 먼저 왜왕이 자칭호를 정식으로 제수해 주기를 요청하고 그것에 대해 송은 ‘安東將軍 倭國王’만 除正하거나 백제를 제외하고 六國諸軍事號만 인정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는 倭國王의 요청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송이 除正 여부를

25) 坂元義種, 1974 <古代東아시아の日本と朝鮮> 《古代の日本と朝鮮》(學生社) 97

26) 田中俊明, 1992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98~100; 高寬敏, 1997 《古代朝鮮諸國と倭國》(雄山閣出版) 203

결정하는 절차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451년의 加號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왜가 백제를 빼고 대신 가라를 넣어 자칭한 ‘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號’을 除正해 줄 것을 먼저 요청하자 송은 安東將軍은 종전처럼 수여하고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號’는 加號해 주었던 것이다.

물론 현재 《宋書》 왜국전에는 濟가 백제를 빼고 가라를 넣은 自稱號를 除授해 줄 것을 먼저 요청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서 미루어 볼 때 그러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443년의 ‘復以爲安東將軍倭國王’이라 한 기사이다. 이 기사의 ‘復’은 443년에 濟가 自稱號를 除正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그 자칭호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지만 珍의 경우에서 미루어 볼 때 백제가 포함된 六國諸軍事號였을 것이다. 이에 대해 송은 六國諸軍事號는 인정하지 않고 종전처럼 ‘安東將軍 倭國王’의 작호만 주었다. ‘復’字는 바로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451년의 加號 기사에 나오는 ‘安東將軍如故’이다. 濟는 443년에 안동장군을 받았으므로 451년의 ‘安東將軍如故’는 443년의 ‘安東將軍號’²⁷⁾를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宋은 이와 동시에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를 加號하였다. 이는 加號에 앞서 濟가 安東將軍號 외에 都督諸軍事號도 함께 요청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加號에 나오는 백제가 빠지고 가라가 포함된 都督六國諸軍事號가 아니었을까 한다.

셋째, 451년의 ‘并除所上二十三人軍郡’이라는 기사이다. 이 기사의 ‘并’은 濟가 23인의 신하에 대한 軍號와 郡號를 요청한 것 외에 다른 요청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요청이란 왜왕 자신과 관련된 稱號임은 물론이다. 그 칭호는 ‘安東將軍如故’와 연결시켜 보면 ‘都督六國諸軍事號’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珍은 438년에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倭國王’을 자칭하고 除正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27) 《宋書》 권5 本紀 제5 文帝紀 元嘉 28년조에는 “秋七月甲辰 安東將軍倭國王濟 進號安東大將軍”이라 하여 이때 濟가 安東大將軍에 進號된 것으로 나와 倭國傳의 내용과 다르다. 이에 대해 倭國傳이 옳고 本紀의 기록이 잘못이라는 견해, 본기 쪽이 옳고 왜국전이 잘못이라는 견해, 두 기록이 모두 옳다는 전제하에서 왜국전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먼저이고 그 후 본기의 기록처럼 안동대장군으로 進號되었다고 보는 견해 등이 나왔다. 이러한 諸見解에 대한 소개는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吉川弘文館) 472~473 참조. 그러나 본고는 加羅가 제군사호에 들어가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검토는 후일을 기약하는 바이다.

송은 安東將軍倭國王과 신하들의 軍號만 승인해 주었다. 443년 濟는 宋에 遣使貢獻할 때 珍과 마찬가지로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倭國王’을 자칭하면서 정식 제수를 요청하였지만 송은 역시 ‘安東將軍倭國王’만 인정해 주었다. 이렇게 되자 濟는 451년에 백제를 빼고 加羅를 넣어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倭國王’을 自稱하고 정식 제수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23명의 신하들에게 軍號와 郡號도 除正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²⁸⁾ 송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종래의 安東將軍倭國王 외에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號’를 加號해주고 또 신하들에 대한 軍號·郡號도 승인해 주었다. 이렇게 보면 加號에 百濟가 빠지고 加羅가 들어간 것은 왜왕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²⁹⁾

濟가 백제를 제외하고 加羅를 넣은 작호를 요청한 것은 宋의 爵號 수여의 원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송은 주변 諸國의 首長에게 爵號를 줄 때 一國·一爵號가 하나의 원칙이었다. 그래서 송은 濟의 自稱號 속에 자신이 이미 爵號를 수여한 百濟가 들어 있었으므로 都督諸軍事號를 승인해 주지 않았던 것이다. 왜는 백제가 포함된 都督諸軍事號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방법으로 백제를 제외하고 加羅를 넣은 都督六國諸軍事를 요청하였고 송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승인을 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倭王 武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본다. 왜왕 무의 경우에 대해서는 VI-1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한편 加號 속에 가라가 들어간 것에 대해 442년 倭가 大加耶 侵攻에 현실적으로 실패한 후 송으로부터 군사적 진출의 권리를 정식으로 인정받으려고 加羅를 넣은 自稱號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³⁰⁾ 그러나 대가야 침공에 실패한 후 군사적 진출의 권리를 송에 구하였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加羅에 진출하는데 송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이전에도 송에 대해 그러한 요청을 하여야 하였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리하여야 할 것은 加號에 나오는 加羅의 실체이다. 이 문제의 해명은 任那加羅와 加羅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해 倭가 광개토태왕비문에 나오는 任那加羅를 임의로 任那와 加羅의 두 나라로 나누었다고 보는 견해도³¹⁾ 있다.

28) 坂元義種은 비록 《宋書》에 전해지지 않지만 이해에 왜가 송에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보고 있다.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吉川弘文館) 312~313

29) 藤間生大도 濟가 宋에 表를 올릴 때 加羅를 上表文 속에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藤間生大, 1968 《倭の五王》(岩波書店) 148 참조.

30) 田中俊明, 1992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吉川弘文館) 98~100 참조

31) 천관우, 1991 《가야사연구》(일조각); 王健群, 1992 <임나일본부와 왜의 오왕> 《가야

그러나 任那는 任那加羅를 축약하여 칭한 것으로서 加羅와는 별개의 실체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日本書紀》 神功紀에 의하면 比自炁·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라 하여 이른바 加耶7국이 나온다.³²⁾ 이 가운데 南加羅는 김해의 金官加耶를 가리키고 加羅는 高靈의 大加耶를 가리킨다는 데는 별다른 異見은 없다. 고령세력은 처음에는 반로국을 칭하였다가³³⁾ 후에 가라국으로 개칭하였다. 그 시기는 《日本書紀》 神功紀에 가라가 나오고 있으므로 늦어도 4세기 중반 경에 고령세력이 半路國에서 加羅國으로 개칭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령세력이 自國의 명칭을 半路國에서 加羅國으로 개칭하게 된 배경에는 김해 金官加耶가 칭호를 개칭한 것이 一端의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해세력은 3세기까지는 拘邪國으로 불리었지만 4세기 중반 경에 와서 광개토대왕비문에 보듯이 임나가라를 칭하였다. 任那加羅의 任那는 ‘主國’의 의미라고 하므로³⁴⁾ 任那加羅는 加耶諸國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가야 즉 ‘主된 가야’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김해세력이 임나가라를 칭한 것은 加耶연맹체에서 맹주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³⁵⁾ 이처럼 김해세력이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임나가라를 칭하자 고령세력도 그에 응하여 가라국을 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고령세력이 가라를 칭할 만큼 정치적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加號의 任那는 任那加羅를 축약하여 표현한 것이고 加羅는 加羅國 즉 大加耶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바이다.³⁶⁾

加羅는 가야연맹체를 형성한 加耶諸國의 한 나라이다. 이 가라국은 451년 이전에는 왜왕의 자칭호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왜왕의 자칭호에 대한 종래의 견해대로라면 한반도 남부지역은 왜의 군사적 지배를 받은 것처럼 되어 고령세력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가라는 왜왕의 자칭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왜의 군사적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던 셈이 된다. 加羅가 왜의 군사적 지배를 받지

문화》 5집

32) 《日本書紀》 권제9 神功紀 49년조

33) 김태식, 1998 《가야연맹사》(일조각) 95~103

34) 이기백·이기동, 1981 《한국사강좌》 1 고대편 (일조각), 159

35)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書紀》 神功紀에 금관가야가 南加羅로 나오게 된 것은 5세기에 들어와 김해세력이 약화되어 실제로 남가라로 불리게 되었을 때의 사실이 神功紀에 소급되어 기록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노중국, 1998 <가야사연구의 어제와 오늘> 《한국고대사속의 가야사》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참조.

36) 加號의 加羅를 大加耶로 보는 견해로는 이용현, 2000 <加羅(大加耶)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과 그 대외교섭> 《한국고대사연구》 18 (한국고대사학회) 43~44 참조.

않았다고 하면 가야보다 먼저 강대한 세력을 형성한 백제와 신라가 왜의 지배를 지배받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점은 宋이 왜왕 珍과 濟의 자칭호를 승인해 줄 때 시종일관 백제를 제외시켰다는 것에 의해서도 입증되리라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필자는 왜왕이 자칭한 都督諸軍事號를 근거로 왜가 한반도 남부지역을 지배하였거나 지배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바이다.

2. 秦韓과 慕韓 문제

倭王이 자칭한 작호의 6國 또는 7國에는 秦韓과 慕韓이 들어 있다. 秦韓은 辰韓의 異表記이고 慕韓은 馬韓의 異表記임은 물론이다. 근래에는 이 秦韓과 慕韓이 5세기 이후에도 존재한 것으로 보고 秦韓은 江陵에서 蔚珍에 걸친 동해안 지역과 奉化·영주·안동 등의 소백산맥 남쪽 일대에, 慕韓은 전남의 영산강 유역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한 견해가 나왔으며³⁷⁾ 일본학계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는 논자들도 점차 나오고 있다.³⁸⁾ 그러나 이 시기에 진한과 모한은 이미 소멸되고 존재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리해 두기로 한다.

《晉書》에 의하면 마한은 290년에도 西晉에 사신을 보내고 있으므로³⁹⁾ 馬韓의 소멸은 3세기말 이후로 보아야 한다. 이를 입증해 주는 것이 《通典》 邊方に 나오는 다음의 기사이다.

A-1 晉武帝咸寧中 馬韓王來朝 自後無聞 三韓皆爲百濟新羅所吞并⁴⁰⁾

A-2 自晉以後 吞并諸國 據有馬韓故地⁴¹⁾

A-1의 기사는 晉 咸寧(275-279) 이후 三韓은 백제와 신라에 併呑된 것을, A-2의 기사는 晉 이후 백제가 마한의 고지를 併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晉以後’의 ‘晉’이 西晉을 가리키는 것인지 東晉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A-1에서의 晉은

37) 東潮, 1996 <秦韓과 慕韓> 《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232~233

38) 鈴木靖民이 5-6세기의 東아시아지도를 만들면서 秦韓을 경상북도 北部에, 馬韓을 全羅南道지방에 표시한 것이 그 예가 되겠다. 이에 대해서는 鈴木靖民, 2002 <倭國と東アジア> 《倭國と東アジア》(日本の時代史 2, 吉川弘文館), 28~29에 수록된 지도 참조.

39) 《晉書》 권97 四夷 馬韓전에 “又頻至 太熙元年 詣東夷校尉河龕上獻.”이라 한 기사 참조

40) 《通典》 권185 변방1 변한조

41) 《通典》 권185 변방1 백제조

서진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A-2의 쑤도 西晉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마한은 西晉(265-316년)이 망한 4세기초 이후 어느 시기에 백제의 의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를 방증해 주는 것이 《梁書》에 나오는 다음의 기사이다.

東夷之國朝鮮爲大 得箕子之化 其器物猶有禮樂云 魏時朝鮮以東馬韓辰韓之屬 世通中國 自晉過江泛海 東使有高句麗百濟 而宋齊間 常通職貢⁴²⁾

이 기사에 의하면 魏나라 때에는 馬韓·辰韓과 교통이 이루어졌지만 晉過江 이후 즉 西晉이 망하고 東晉이 들어선 이후에는 高句麗·百濟와 통교가 이루어졌다. 동진 이후 高句麗·백제와 통교하였다는 것은 이 시기에 마한과 진한은 이미 없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마한은 언제 소멸된 것인가.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추정하는데 주목되는 자료가 《日本書紀》 神功紀 49년의 다음의 기사이다.

仍移兵西廻 至古奚津 屠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於是其王肖古及王子貴須亦領軍來會 時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 自然降伏...唯千熊長彥與百濟王 至于百濟國 登辟支山盟之 復登古沙山 共居磐石上⁴³⁾

이 기사에 나오는 辟支山은 전북 김제에, 古沙山은 전북 고부에 비정되고 있으므로 忱彌多禮는 그 남쪽인 영산강 유역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 시기 영산강 유역에는 忱彌多禮를 비롯하여 4邑으로 표현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 핵심세력은 忱彌多禮였다.

이 忱彌多禮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晉書》 張華傳에는 나오는 다음의 기사이다.

東夷馬韓新彌諸國等 依山帶海 去州四千餘里 歷世未附者二十餘國 並遣使朝獻⁴⁴⁾

이 기사에 의하면 新彌諸國은 ‘東夷馬韓新彌諸國’이라 한 것에서 보듯이 마한을 칭하고 있었고 이들은 ‘歷世未附’ 즉 이제까지 독자적으로 중국과의 교섭이 없었다가 이제 와서 교섭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 《梁書》 권54 列傳제48 諸夷 序

43) 《日本書紀》 권9 神功紀 섭정 49년조

44) 《晉書》 권36 張華傳

그런데 이 新彌國의 ‘新彌’와 忱彌多禮의 ‘忱彌’는 음이 상통하며 多禮는 ‘별관’·‘國’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新彌國과 忱彌多禮는 같은 실체라고 할 수 있다.⁴⁵⁾ 이는 곧 영산강 유역에 위치한 忱彌多禮를 중심으로 한 4邑의 존재는 바로 마한을 구성한 新彌제국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日本書紀》 神功紀 49년조에 忱彌多禮가 백제에 의해 屠戮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산강유역의 마한 세력이 백제에 의해 멸망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각에서 《日本書紀》 神功紀 49년조의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神功紀 49년(249)은 2周甲 引下說을 따른다면 369년으로서 百濟 近肖古王 24년이 된다. 둘째, 《日本書紀》에는 이때 忱彌多禮 등을 정복한 주체를 倭로 표기하고 있지만 정복군의 장군인 木羅斤資가 百濟將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서 미루어 볼 때 그 주체는 백제이다. 셋째, 忱彌多禮의 정복은 가야지역 평정에 나선 木羅斤資 등이 거느린 군대와 근초고왕 부자가 거느린 군대의 합동 작전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백제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넷째, 심미다례의 도륙은 마한세력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마한은 369년에 의해 소멸되어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다.⁴⁶⁾ 이 연대는 《三國史記》에 온조왕이 마한을 정복하였다고 하는 서기 9년을 6周甲 인하한 연대와 일치하는 것에 의해서도 방증이 되리라 본다.

한편 秦韓은 《晉書》에 286년에도 西晉에 사신을 보내는 것으로 나오므로 3세기 말까지는 존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후 진한은 자료 A-1에서 보듯이 西晉 이후 어느 시기에 신라에 의해 병합되었다. 그 구체적인 시기를 추정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다음의 기사이다.

二十六年 遣衛頭入苻秦 貢方物 苻堅問衛頭曰 卿言海東之事 如故不同 何也 答曰亦猶中國時代變革 名號改易 今焉得同⁴⁷⁾

이 기사는 신라 奈勿王이 26년(381)에 前秦에 파견한 사신 衛頭와 前秦王 苻堅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이다. 이 기사에 의하면 前秦의 苻堅王은 海東 즉 신라의 일이 옛날과 다르다고 하고 있고 신라 사신도 시대의 變革과 名號의 改易을 말하

45) 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19~120

4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李丙燾, 1976 <近肖古王拓境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512~514

千寬宇, 1991 《加耶史研究》 (一潮閣) 33~36

金鉉球, 1993 《任那日本府研究》 (一潮閣) 30~40

47) 《三國史記》 권제3 신라본기 나물이사금 26년조

고 있다. 두 사람의 말의 공통점은 이 시기에 신라에서는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변화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삼국사기》에 4세기에 들어와 斯盧國의 辰韓諸國 평정 기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신라의 辰韓제국 병합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고 하면 진한제국은 4세기 후반에는 이미 신라에 의해 병합되어 소멸되어 버렸다고 하겠다.

이처럼 마한은 4세기 중엽 경에 이미 백제의 영역으로 되었고, 진한도 4세기 후반에 이미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멸망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왕은 자칭 호 속에 秦韓과 慕韓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는 나라를 존재한 것처럼 하여 자칭호에 포함시킨 셈이 된다.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정치체에 대해 왜왕이 군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또 송이 존재하지도 않은 나라에 대해 왜의 군사권 행사를 승인해 준 것도 역시 어불성설로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다만 책봉체제가 갖는 외교적 便宜主義를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⁴⁸⁾

IV. 東征·西服·渡平海北과 軍號·郡號

1. 東征·西服·渡平海北의 시기

《宋書》倭國傳에서 일본열도가 왜왕에 의해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기사이다.

自昔祖禰 躬擐甲冑 跋涉山川 不遑寧處 東征毛人五十五國 西服衆夷六十六國 渡平海北九十五國

이 기사에서 毛人, 衆夷 등의 표현은 중국의 夷狄觀을 바탕으로 깔고 한 표현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55國, 66國, 95國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물론 과장된 것이지만 이러한 국들의 존재는 일본열도의 상당한 지역이 아직까지 倭王權에 服屬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후 왜왕의 東征·西服·渡平海北에 의해 이 세력들은 왜왕

48) 江畑武, 1974 <4-6世紀の朝鮮三國と日本-中國との册封をめぐる-> 《古代の日本と朝鮮》(學生社) 117

권에 평정되고 말았다.

그러면 東征·西服·渡平海北이라고 하는 정복사업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그 시기를 추정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自昔祖禰’⁴⁹⁾의 ‘祖禰’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점이다. 이 祖禰에 대해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보는 설, 단순히 조상을 일컫는 것으로 보는 설, 祖禰 자체를 고유명사로 보는 설, 祖彌의 誤記로 보는 설 등 다양하다.⁵⁰⁾ 이 가운데 祖禰 자체를 고유명사로 보는 것은 武의 상표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祖禰를 祖彌의 誤記로 보는 견해는 《梁書》 倭傳과 《南史》 왜전에 濟의 아버지가 彌로 나오는 것에⁵¹⁾ 근거한 것이지만 祖禰가 祖彌의 誤寫 내지 誤記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으므로 함부로 誤寫·誤記라고 할 수 없다. 한편 祖禰를 옛 선조라고 하면 東征·西服 등의 정복 활동이 이루어진 시기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論者에 따라 ‘옛 조상’에 해당되는 시기는 들쭉날쭉하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祖禰를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파악하는 견해에 찬동하는 바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武의 상표문에는 중국 古典에서 인용한 문장이 많다. 그리고 先代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아버지와 형은 父兄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는 亡考로 표기하고 있다. 祖禰도 그 중의 하나이다. 祖禰에 대해 《周禮》에는 ‘祖廟禰’·‘祖禰’가 나오고 그 注에는 ‘鄭司農云 禰父廟’⁵²⁾라 하여 禰를 父廟라고 하고 있다.⁵³⁾ 또 비록 고구려의 경우이지만 泉男產墓誌銘에는

君諱男產 … 乃高乃曾 繼中裏之顯位 惟祖惟禰 傳對虛之大名⁵⁴⁾

라 하여 父를 禰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왜국전의 祖禰는 왜왕 武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49) 《翰苑》 蕃夷部 倭條에는 ‘自昔祢’로 나온다. 祢는 禰와 同字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翰苑》은 “宋書曰 永初中倭國有王曰讚”이라 한 것에서 보듯이 《宋書》의 기사를 베낀 것이다. 따라서 ‘自昔禰’는 《宋書》대로 ‘自昔祖禰’로 보아야 한다.

50) 이 문제에 대한 諸見解의 정리는 笠井倭人, 1973 《研究史 倭の五王》(吉川弘文館) 127~131 참조.

51) 《梁書》 권54 諸夷 倭傳에 “晉安帝時 有倭王贊 贊死立弟彌 彌死立子濟”라고 한 기사 참조. 《南史》의 내용도 같다.

52) 《周禮》 春官 甸祝

53) 祖禰에 대해 《中文大辭典》도 “祖廟與父廟”라고 해석하고 있고 《大漢和辭典》도 “祖先之廟 禰 父之廟”라고 정리하고 있다.

54) 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고구려·백제·낙랑 편) 529

그러나 《송서》 왜국전에는 武의 아버지가 濟라는 것은 나오지만 武의 할아버지 즉 濟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珍과 濟와의 血緣관계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당시 왜에는 讚-珍과 濟-興의 두 개의 大王家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⁵⁵⁾ 있다. 그러나 讚과 濟는 倭讚, 倭濟로 표현되고 있으므로 이들은 倭를 姓으로 하는 父系의 親族集團으로 보는 것이⁵⁶⁾ 타당하다. 그렇다고 하면 濟는 讚과 그 아들 珍과 혈연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珍과 濟가 혈연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양자가 父子관계인지 兄弟관계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를 해명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梁書》 왜전의 다음의 기사이다.

晉安帝時 有倭王贊 贊死立弟彌 彌死立子濟 濟死立子興 興死立武⁵⁷⁾

이 기사에 의하면 讚의 아들 彌가 濟의 아버지로 나온다. 그런데 彌의 약자 '弥'와 珍의 약자 '珍'은 字形이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두 약자는 종종 混用되기도 한다. 《翰苑》의 경우 珍을 新羅條에서는 '弥'로 표기한 반면에 倭條에서는 '珍'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 따라서 《양서》에서 濟의 아버지를 彌라 한 것은 《宋書》의 '珍=弥'를 '弥'로 읽고 弥의 本字인 '彌'로 표기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결국 彌=弥는 珍=弥와 동일체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 珍은 濟의 아버지요 武의 할아버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自昔祖禰'의 祖禰가 무의 할아버지인 珍과 아버지인 濟를 가리킨다고 하면 東征·西服·渡平海北이라는 정복 사업도 珍과 濟 代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珍이 宋에 사신을 파견한 시기는 438년으로 추정되고 있고, 濟는 442년에 송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462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죽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상표문에 보이는 珍과 濟에 의한 정복활동은 대략 430년대에서 460년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55) 藤間生大, 1968 《倭の五王》(岩波書店)

原島禮二, 1970 <倭の五王とその前後>(塙書房)

川口勝康, 1981 <五世紀の大王と王統譜を探る>《巨大古墳と倭の五王》(青木書店)

56) 武田幸男, 1975 <平西將軍 倭隋の解釋 -五世紀の倭國政權にふれて->《朝鮮學報》77(朝鮮學會) 24~26

吉村武彦, 1990 <倭の五王とは誰か>《爭點 日本の歴史》第2卷(古代篇1, 新人物往來社) 63~66

57) 《梁書》 권54 諸夷 倭傳

2. 渡平海北의 對象 地域

武의 상표문에 보이는 일본열도의 통합 기사는 倭王室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정복사업이 430년대에서 460년대 사이에 일단락되었다고 하면 역으로 460년대 이전에 일본열도에는 아직 倭王權에 통합되지 않은 여러 세력들이 각 지역에 分立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珍과 濟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躬擐甲冑’하고 ‘跋涉山川’하며 정복활동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정복의 방향은 東·西·海北인데 그 방향은 왜의 중심지에서 보았을 때의 방향이다. 이 시기 왜의 중심은 大和지역이므로⁵⁸⁾ 정복의 대상지역 추정은 大和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정복의 대상 지역에 대해 일본학계에서는 東征毛人是 關東지역으로, 西服衆夷는 出雲·吉備·北규슈지역으로, 渡平海北은 韓半島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⁵⁹⁾ 이러한 견해를 따른다면 珍-濟 代에 왜는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정복한 것이 된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海北을 한반도로 보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째로 《송서》 왜전에 나오는 征·服·平은 똑같이 平定·征服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征·服·平을 단행한 珍과 濟가 征服 지역들을 지배하는 방식도 비슷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東征의 대상지역과 西服의 대상지역에는 이후 독자적인 國名을 가진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渡平海北의 대상지역에도 독자적인 국명을 가진 세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남부지역에는 百濟, 新羅, 任那 등 독자적인 국명을 가진 정치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더구나 武의 상표문에는 ‘道遙百濟’라 하여 백제가 엄연한 국가적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明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海北의 95國이 한반도에 있었던 諸國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로 《日本書紀》에서 한반도를 지칭하는 방위는 대다수 西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神功紀에는 한반도를 공격한 것을 西征·平定海西로⁶⁰⁾, 한반도 諸國을 海西·西蕃·海西諸韓으로 표기하고 있고⁶¹⁾ 반면에 백제는 왜를 海東貴國·東方有日本貴國

58) 武田幸男, 1975 <平西將軍 倭隋の解釋 -五世紀の倭國政權にふれて-> 《朝鮮學報》 77 (朝鮮學會) 14~20

59) 武田幸男, 1975 <平西將軍 倭隋の解釋 -五世紀の倭國政權にふれて-> 《朝鮮學報》 77 (朝鮮學會) 11~14. 이와는 달리 광개토태왕비문에 있는 4세기말 5세기 初頭の 왜군이 신라·고구려 영역 내로의 일시적 進攻을 倭側에서 과장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鈴木英夫, 1996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92~93 참조.

60) 《日本書紀》 권제9 神功紀 즉위전기, 51년조

에서⁶²⁾ 보듯이 東을 붙여 부르고 있다. 雄略紀에는 신라가 自居西土로 표기되고 있고⁶³⁾, 顯宗紀에는 將西王三韓이라는 표현이⁶⁴⁾, 欽明紀에는 海西諸國·西蕃諸國·西蕃이라는 표현이 나온다.⁶⁵⁾ 이처럼 《日本書紀》에서 한반도를 서쪽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海北을 한반도로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渡平海北의 대상 지역은 東征·西服의 대상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본열도 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海北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할 때 먼저 이 海가 어느 바다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渡平’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海北 지역에 대한 정복은 수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武田幸男은 왜의 수군이 활동한 海에 대해 畿內 北方의 若狹灣과 北陸沿岸 지방을 검토한 후 이들 지역에는 95국을 比定할만한 여지가 없다고 보고 결론적으로 日本列島와 韓半島 사이의 海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⁶⁶⁾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大和倭 수군이 활동한 海를 瀬戸內海로 보고자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전근대시기에 일본열도를 지리적으로 어떻게 인식하였느냐 하는 점이다. 5세기 이전에 일본열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주목되는 것이 《三國志》 倭傳에 나오는 다음의 기사이다.

從郡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七千餘里 始度一海千餘里 至對馬國 … 又南渡一海千餘里 名曰瀚海 至一大國 … 又渡一海千餘里 至末盧國 … 東南陸行五百里 到伊都國 … 皆統屬女王國 … 東南至奴國百里 … 東行至不彌國百里 … 南至投馬國 水行二十日 … 南至邪馬臺國 女王之所都 水行十日 陸行一月 … 自女王國以北 其戶數道里可略載 其餘旁國 遠絕不可得詳 …⁶⁷⁾

이 기사는 帶方郡에서 출발한 중국 사신이 邪馬臺國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나라들의 이름과 그 行路의 방향과 거리가 陸路 또는 水路로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 행로를 보면 對馬國의 남쪽에 一大國=一支國(지금의 壹岐島)가 있고, 一大國에서 末盧國으로 가는데 방향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남쪽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末盧國의

61) 《日本書紀》 권제9 神功紀 즉위전기, 50년조, 52년조

62) 《日本書紀》 권제9 神功紀 즉위전기, 46년조

63) 《日本書紀》 권제14 雄略紀 9년 3월조

64) 《日本書紀》 권제15 顯宗紀 3년 하4월 是歲條

65) 《日本書紀》 권제19 欽明紀 5년 춘정월조, 10년 하4월조, 13년 동10월조, 16년 춘2월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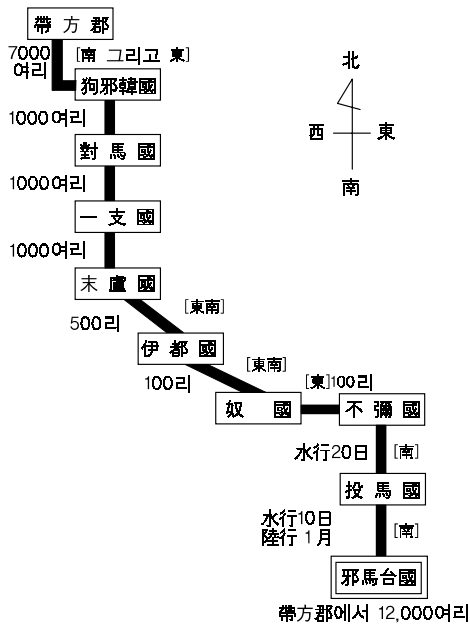
66) 武田幸男, 1975 <平西將軍 倭隋の解釋 -五世紀の倭國政權にふれて-> 《朝鮮學報》 77 (朝鮮學會) 19~20

67) 《三國志》 권제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제30 倭人傳

동남쪽에 伊都國이 있었는데 육로로 500리이고, 伊都國의 동남쪽에 奴國이 있었는데 육로로 100리이고, 奴國의 동쪽에 不彌國이 있었는데 육로로 100리이고, 不彌國의 남쪽에 投馬國이 있었는데 뱃길로 20일 걸리고, 投馬國의 남쪽에 邪馬臺國이 있었는데 뱃길로는 10일 육로로는 1개월이 걸렸다.

이를 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⁶⁸⁾

<표 1> 邪馬臺國에의 行程路



이 가운데 末盧國은 佐賀縣 東松浦郡에서 唐津市에 걸친 一帶에 비정되고 있으며, 伊都國은 福岡縣 前原市·糸島郡에 비정되고 있고, 奴國은 福岡縣 博多區, 春日市에 비정되고 있다.⁶⁹⁾ 따라서 이들은 모두 九州地域에 위치하였다.

그런데 이 행로의 중착점은 邪馬臺國이다. 이 邪馬臺國의 위치에 대해서는 九州說

68) 이 표는 武光誠·讀賣新聞調査研究本部, 1998 《魏志倭人傳と邪馬臺國》(讀賣新聞社) 7에서 옮긴 것이다.

69) 武光誠·讀賣新聞調査研究本部, 1998 《魏志倭人傳と邪馬臺國》, 讀賣新聞社, 60~63

과 畿内說이 있어왔지만 九州에 위치한 不彌國에서 邪馬臺國까지 가는데 뱃길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畿内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畿内の 邪馬臺國에서 九州의 末盧國으로 가는 길은 末盧國에서 邪馬臺國으로 가는 길의 역코스가 된다. 따라서 앞의 표에서 보듯이 邪馬臺國에서 九州에 이르는 방향은 뱃길로는 북쪽이 된다. 이 뱃길이 바로 瀬戶内海임은 물론이다.

일본열도의 이러한 모습이나 뱃길에 대한 인식은 5세기 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면 《송서》 왜국전의 ‘渡平海北’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왜왕 무의 祖나 父가 수군을 거느리고 건넌 바다는 바로 瀬戶内海이며 이 海의 북쪽에 위치한 것은 九州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渡平海北의 대상지역이 한반도가 아니라 九州였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日本書紀》에는 ‘海北’이라는 단어가 두 곳에 나온다. 하나는 欽明紀 15년조에 나오는 기사이고 다른 하나는 神代 상에 나오는 기사이다. 먼저 橿原紀 15년조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冬十二月 百濟遣下部扞率汶斯干奴 上表曰 百濟王臣明及在安羅諸倭臣等 任那諸國旱岐等奏 以斯羅無道 不畏天皇 與狛同心 欲殘滅海北彌移居⁷⁰⁾

이 기사의 海北에 대해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한반도 南部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海北을 한반도로 보면 ‘海北彌移居’는 왜왕이 한반도에 彌移居를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554년에 이르기까지 倭王의 彌移居가 한반도 남부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海北彌移居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주목되는 것이 《日本書紀》 神代 상에 나오는 다음의 기사이다.

B-1 乃以日神所生三女神 令降於筑紫洲 因教之曰 汝三神 宜降居道中 奉助天孫 而爲天孫所祭也⁷¹⁾

B-2 卽以日神所生三女神者 使降居于葦原國之宇佐鳴矣 今在海北道中 號曰道主貴 此筑紫水沼等諸神是也⁷²⁾

이 기사에 보이는 三女神은 筑紫의 宗像의 세 女神으로서 처음에는 宗像君과 水沼

70) 《日本書紀》 권제19 欽明紀 15년조.

71) 《日本書紀》 권제1 神代 上 제6단 一書第一

72) 《日本書紀》 권제1 神代 上 제6단 一書第三

君 등이 받드는 筑紫의 地方神이었으나 그 神格이 昇華되어 갔다고 한다.⁷³⁾ 세 여신이 내려온 곳에 대해 B-1에서는 ‘筑紫洲 道中’으로, B-2에서는 ‘葦原國의 宇佐嶋’로 나온다. 따라서 筑紫洲 道中은 宇佐嶋로 볼 수 있다.

宇佐嶋의 위치에 대해 岩波講座 《日本書紀》에서는 다음과 같이 頭注를 달고 있다.

豊前國(大分縣)宇佐郡宇佐. 諸書, 豊前國宇佐郡の宇佐と解し, 通證に「見林曰宇佐嶋非海島 二川周流神山 故有島名」とあるが、島とは、海路宇佐に至るためか。地名辭書は前後の文脈から筑前國宗像郡の沖ノ島と斷ずる。海の彼方から神が來臨するとの考え方を取れば、沖ノ島説がよい。未詳⁷⁴⁾

이 頭注에 의하면 諸書에는 宇佐郡의 宇佐로 보고 있지만 注解者는 地名辭書에서는 先후 문맥에서 비추어 宗像郡의 沖ノ島로 보고 있으므로 宇佐嶋는 沖ノ島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沖ノ島가 한반도로 가는 海路의 要衝地라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섬을 발굴한 결과 이곳의 祭祀遺跡은 4세기 후반에서 9세기에 걸쳐 있고 그 유물은 大和王權의 直祭의 성격을 가지는 유적이라는 것에⁷⁵⁾ 의해 보완되었다. 이후 이러한 해석은 일본학계에서 통설화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海北의 海를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⁷⁶⁾ 그러나 필자는 우좌도를 沖ノ島로 보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명을 비정하고자 할 때 地名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은 매우 중요하며 地名比定의 일차적인 단서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동일한 지명이나 비슷한 지명은 같은 곳에 비정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沖ノ島와 宇佐嶋는 명칭상 연결되지 않으며 또 양자를 연결시켜 주는 所傳도 없다. 또 沖ノ島가 비록 한반도로 가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황만으로 沖ノ島를 우좌도와 연결시킨다면 이는 미리 결론을 내어놓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에 세 여신이 내려온 곳인 宇佐嶋는 豊前國(오늘날의 大分縣) 宇佐郡 宇佐와 지명이 완전히 일치한다. 더구나 宇佐에는 지금도 宇佐神社가 남아 있다.

73) 正木喜三郎, 1988 <宗像三女神と記紀神話> 《古代を考える沖ノ島と古代祭祀》(吉川弘文館) 61

74) 岩波書店 《日本書紀》上 110쪽의 頭註7

75) 1979 《宗像沖ノ島(1)》(吉川弘文館)

76) 武田幸男, 1975 <平西將軍 倭隋の解釋 -五世紀の倭國政權にふれて-> 《朝鮮學報》 77 (朝鮮學會) 20

그러므로 宇佐嶋는 大分縣의 宇佐郡 宇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宇佐嶋를 宇佐郡의 宇佐라고 하면 渡平海北의 ‘海北’을 어디로 비정할 것인가를 해명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B-2의 ‘今在海北道中’이다. 이 海北道中에 대해 岩波講座《日本書紀》에서는 본문에 “今 海の北の道の中に在す”라고 解釋하고 頭注에서

はじめ宇佐に降つたが、今は 海北道中にいるの意か。⁷⁷⁾

하고 있다. 頭注의 이 文章은 ‘세 여신은 처음에 宇佐에 내려왔지만 지금은 海北道中에 있다는 뜻인가’로 해석되는데 이는 宇佐와 海北道中의 위치가 다르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문제는 이 ‘道中’에 대한 해석이다. B-2의 ‘海北道中’은 B-1의 ‘宜降居道中’과 동일한 내용을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두 기사의 道中은 서로 연계시켜 살펴보아야 한다. B-1의 ‘宜降居道中’의 ‘道中’에 대해 岩波講座《日本書紀》에는 다음과 頭注를 달고 있다.

第三の一書に、海北道中。纂疏に「道中者、西海道中也」とあり、筑紫の北部、豊前・筑前・肥前の中部、即ち筑前にあたるといふが、朝鮮への海路の途上の意であろう。中つ宮のある沖ノ島は、下關・對馬北端・釜山を結ぶほぼ一直線上にあり、沖ノ島と中つ宮のある大島との間は約50キロである。⁷⁸⁾

이 頭注에 의하면 纂疏는 道中을 筑前に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注解者는 道中을 ‘한반도로 가는 海路의 途上의 뜻’으로 보아 결론적으로 沖ノ島에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한반도와의 교통로를 염두에 두고서 道中을 沖ノ島로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道中’을 ‘途上’의 뜻으로 보면 宜降居道中은 세 여신이 途上에(어디 어디로 가는 길에) 降居하는 것이 되어 뜻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宜降居道中의 ‘道中’은 途上의 뜻이 아니라 일정한 ‘地域’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순조롭게 해석이 된다. 道中을 일정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纂疏에서 道中을 ‘筑紫의 北部、豊前・筑前・肥前의 中部、즉 筑前に 해당된다’고 한 것에 의해서도 입증되리라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海北道中과 宜降居道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今在海北道中’은 宇佐嶋의 位置를 말해주는 일종의 注와 같은 文句로서 세 여신

77) 岩波書店 《日本書紀》 110쪽 頭注 8

78) 岩波書店 《日本書紀》 108쪽 頭註 5

이 내려온 宇佐嶋가 ‘지금은 海北의 어느 지역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둘째 B-1에서 세 여신이 내려온 筑紫洲의 道中은 구체적으로는 B-2의 宇佐嶋가 된다. 셋째 이 宇佐嶋는 바로 豊前國(大分縣) 宇佐郡의 宇佐이다. 넷째 豊前國의 이 宇佐嶋는 海의 북에 위치하였는데 豊前國(大分縣)은 瀬戶內海의 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海는 瀬戶內海가 된다. 이는 《三國志》 왜전에 나오는 중국 사신의 行路와도 일치한다.

豊前國의 宇佐嶋가 瀬戶內海의 북쪽의 위치하였다는 추론이 성립된다고 하면 海北은 九州지역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武의 상표문에 보이는 渡平海北 95국은 한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九州지역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渡平海北을 九州지역이라고 하였을 때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에 구주지역에는 매우 큰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3세기 대에는 중국으로부터 漢委奴國王이라는 金印을 받은 奴國이 존재하고 있었다.⁷⁹⁾ 奴國이 漢으로부터 金印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세력이 매우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6세기 대에 磐井이라고 하는 大勢力이 구주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磐井은 《日本書紀》에

於是筑紫國造磐井陰謀叛逆 猶豫經年 恐事難成 恒伺間隙 新羅知是 密行貨賂于磐井所 而勸防遏毛野臣軍 於是磐井掩據火豐二國 勿使修職 外邀海路 誘致高麗百濟新羅任那等國 年貢職船 內遮遣任那毛野臣軍 …⁸⁰⁾

이라 한 기사에서 보듯이 筑紫 지역은 물론 火國·豊國 지역까지 장악하였고 나아가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 한반도 諸國과의 外交權도 독점하고 있었다. 그의 세력의 強大함은 《筑後國風土記》에 나오는 다음의 기사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筑後國風土記曰 上妻縣縣南二里 有筑紫君磐井之墳墓 高七丈 周六十丈 墓田南北各六十丈 東西各卅丈 石人石盾各六十枚 交陣成行 周匝四面 當東北角 有一別區 號曰衙頭(衙頭政所也) 其中有一石人 縱容立地 號曰解部 前有一人 駝形伏地 號曰偷人(生爲偷猪 仍擬決罪) 側有石猪四頭 號臟物(臟物盜物也) 彼處亦有石馬三疋 石殿三間 石藏二間 古老傳云 當雄大迹天皇之世 筑紫君磐井 豪強暴虐 不偃皇風 生平之時 預造此墓 俄而官軍動發 欲襲之間 知勢不勝 獨自遁于豊前國上膳縣 終于南山峻嶺之谷 …⁸¹⁾

79) 金印과 奴國에 대해서는 板橋旺爾, 1973 《奴國發掘》(學生社) 및 大谷光男, 1974 《研究史 金印 -漢委奴國王印-》(吉川弘文館) 및 高倉洋彰, 1995 《金印國家群時代 -東アジア世界の弥生社會-》(青木書店) 참조.

80)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21년조

81) 《釋日本紀》 권13 筑後國風土記 逸文

이 기사에 의하면 磐井은 강대한 軍事力을 가지고 있었고, 政所로 표현되는 行政權, 決罪로 표현되는 裁判權, 臟物로 표현되는 財政權, 石殿 三間으로 표현되는 宮殿 등을 가지고 있었다. 또 그는 생전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높이 7丈, 둘레 60丈이었다. 이 무덤은 福岡縣 八女市에 위치한 前方後圓墳인 岩戶山古墳으로 比定되고 있다. 이 古墳의 길이는 125m인데 東北角에 한 변이 길이 약 40m인 方形的 區劃이 있고 또 石人·石馬·石盾·石猪 등이 발견되어⁸²⁾ 《筑後國風土記》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磐井이 九州지역에서 행정권, 재판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筑紫·火·豊 지역을 지배하는 상대적으로 獨自성이 강한 세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⁸³⁾ 또 그가 이런 거대한 고분을 生時에 축조하였다는 것은 대규모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527년 6월에 반란을 일으켰다. 이를 안 신라는 그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였지만 1년 6개월 뒤인 528년 11월에 磐井의 反亂은 평정되고 말았다.⁸⁴⁾

이처럼 3세기 때에는 奴國이라는 큰 세력이 있었고 6세기 때에는 磐井이라는 큰 세력이 雄據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4~5세기 대에도 구주지역에 큰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반영해 준다. 따라서 大和政權으로서는 구주지역에 자리한 이 세력들을 평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渡平海北은 바로 구주지역에 기반을 가진 세력들에 대한 정복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⁸⁵⁾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西服의 대상지역이다. 종래 西服의 대상지역은 出雲·吉備지역과 北九州지역을 포함한 것으로 보는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海北이 한반도를 가리킨다는 것과 평서장군 倭隋의 소재지가 西方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 나온 것이다. 그러나 出雲·吉備지역과 北九州지역은 별도의 세계로서 분리시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出雲·吉備은 大和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지만 九州지역은 바다로 격리되어 있어 해로로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점은 《三國志》 동이전

82) 이에 대해서는 岩波書店 《日本書紀》 下 547쪽의 補注 17-二二의 磐井의亂 참조.

83) 鬼頭清明, 1975 <日本民族の形成と國際的契機> 《大系日本國家史》 古代 (東京大學出版會) 참조

84) 반정의 난에 대해서는 田村圓澄·小田富士雄·山尾幸久 共著, 1985 《古代最大の內戰 磐井の亂》 (大和書房) 참조.

85) 海北이 九州지역을 가리킨다고 하면 ‘海北彌移居’는 구주에 설치된 彌移居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는 石井正敏 교수께서 지적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필자가 本稿에서 強調하고자 하는 것은 海北이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한반도에 왜왕의 彌移居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海北이 九州지역이라고 할 때 ‘海北彌移居’를 어떻게 解釋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일의 課題로 남겨 두기로 한다.

왜국조에九州에서大和로 가는行程이 뱃길로 되어 있다는 것에 의해서도 입증되는 바이다.

이처럼九州지역과本州지역을 분리하면西服의 대상지역은出雲·吉備지역에 해당된다. 이는大和에서 보았을 때出雲·吉備지역이 서방에 위치하였다는 사실에 의해 확인되는 바이다. 길비지역이 서쪽에 위치하였다는 것은《日本書紀》應神紀의 다음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春三月甲申朔戊子 天皇幸難波 居於大隅宮 丁酉 登高臺而遠望 時妃兄媛侍之 望西以大歎(兄媛者 吉備臣祖御友別之妹也) 於是 天皇問兄媛曰 何爾歎之甚也 對曰 近日妾有戀父母之情 便因西望而自歎矣 冀暫還之 得省親歎...仍喚淡路御原之海人八十人爲水手 送于吉備⁸⁶⁾

이 기사에 의하면吉備는應神의황후兄媛의 고향으로 나온다.應神이難波=大阪으로行幸하였을 때황후는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살고 있는吉備를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였다. 이때吉備를 바라보는 것을‘望西’또는‘西望’이라 표현하고 있다.望西·西望이라는 표현은吉備가大阪의 서쪽에 위치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武의 상표문의西는吉備·出雲지역으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⁸⁷⁾

이처럼 왜는5세기 중반경에 와서야關東지방, 出雲·吉備지방,九州지방을 정복하게 되었다. 그 정복의 순서는東征->西服->渡平海北이었다. 즉 먼저關東지역을 정복하고 다음에出雲·吉備지역을 평정하고 마지막으로瀬戶內海를 건너九州지역을 정복하였던 것이다.九州지역 정복이 제일 늦은 것은 그만큼 이 지역 세력이 강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武가關東지역 세력을毛人으로, 出雲·吉備지역 세력을衆夷로 표현한 것과는 달리九州지역 세력에 대해夷狄視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 지역이 한반도와 빈번한 접촉을 통해 그 문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⁸⁸⁾

86) 《日本書紀》應神紀 22년 춘3월조

87) 김석형은 왜국이 한반도에 출병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되었으며 方位기사의 渡平海北이란 大和에서九州까지의 일을 말한 것으로서 이때의‘海’는關門海峽이고 그‘北’은‘西’또는‘南’의 잘못이라고 하였다. 金錫亨, 村山正雄 譯, 1964 <三韓三國日本列島分國> 《歷史科學》 1963年 1月號 (朝鮮史研究會) 19쪽. 海北을 한반도로 볼 수 없다는 이 견해에는 동감이지만 北을 西나 南의 오기로 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88) 東의 毛人과 西의 衆夷는 夷狄이라는 의미의 표현인데 비해 海北에는 夷狄의 표현이 없다고 하는 것에 근거하여 海北은 왜왕의 지배가 미친 지역으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보는

이처럼 5세기 전반까지의 일본열도는 아직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각 지역에 여러 세력들이 分立하고 있었다. 이러한 分立상황이 5세기 중엽 경에 와서야 통합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書紀》神功紀 49년조에 근거하여 4세기 중엽에 왜가 한반도 지역을 정복하여 군사적으로 지배하였다고 주장하거나 《宋書》倭國傳의 渡平海北을 한반도 平定으로 보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 주장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

3. 軍號와 郡號

珍과 濟의 東征·西服·渡平海北의 정복활동으로 일본열도의 諸勢力들은 왜왕권 아래로 통합되어졌다. 그러면 왜왕권은 새로이 편입된 이 지역의 세력들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하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軍郡’이다. 이 軍郡은 《南史》夷貊傳에는 ‘職’으로 改書되어 있는데⁸⁹⁾ 이는 중국의 史官도 軍郡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⁹⁰⁾ 이 軍郡에 대해 軍號의 誤로 보는 설도 있고 軍號와 郡號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백제의 경우 개로왕대와 동성왕대에 將軍號, 王·侯號, 府官號와 더불어 太守號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중 太守가 붙은 帶方·廣陵·清河 등은 郡名이다. 따라서 郡太守는 郡號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軍郡은 軍號와 郡號로 나누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⁹¹⁾

軍號는 珍이 438년에 왜수 등 13명에게 假授한 平西·征虜·冠軍·輔國將軍 등을 말한다. 그리고 郡號는 濟대에 처음으로 그 존재가 보인다. 이는 軍號가 먼저 시행되고 그 후에 郡號가 시행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假授된 平西·征虜·冠軍·輔國장군은 왜왕이 송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安東將軍과 마찬가지로 모두 3품이다. 그리고 平西將軍號를 받은 倭隋는 왕실과 同姓의 인물이었다. 이는 將軍號를 제수받은 이들의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상당한 중앙의 유력한 호족세력이었음을 시사해 준다.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鈴木英夫, 1996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青木書店) 94~95 참조.

89) 《南史》 권79 夷貊 下 東夷 倭國傳

90) 武田幸男, 1975 <平西將軍 倭隋の解釋 -五世紀の倭國政權にふれて-> 《朝鮮學報》 77 (朝鮮學會) 29

91) 藤間生大, 1968 《倭五王》(岩波書店) 91~92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吉川弘文館) 360~362, 550~755

이들이 畿內 倭王權으로부터 이러한 軍號와 郡號를 받게 된 배경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400년과 404년에 벌어진 고구려와의 전투 이후의 상황의 변화이다. 400년과 404년에 고구려와 싸운 왜군은 호족연합군이었으며 이 연합군은 결국 고구려군에 의해 대패를 하고 말았다. 이후 倭王은 대외적으로 중국 왕조와의 접촉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호족연합에 참여한 호족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여야 하였던 것 같다. 그 포용의 방법으로서 왜왕은 왕권 하에 편제된 유력한 호족들에게 장군호를 수여하지 않았을까 한다.

다른 하나는 東征·西服·渡平海北이라고 하는 정복활동이다. 이 정복 활동은 濟의 시대에 오게 되면 일단락된다. 이 과정에서 큰 공로를 세운 중앙 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피정복 지역의 유력한 호족들은 새로이 왕권 하에 편제되어 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왜왕은 공로를 세운 중앙의 호족들이나 피정복 지역의 유력한 호족들에게 일정한 예우를 해주어야 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중앙의 호족들에게는 군호를, 지방의 유력호족들에게는 郡號를 수여하지 않았을까 한다.

왜왕이 이처럼 중앙과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에게 軍號와 郡號를 수여한 것은 이들을 왕권 하에 편제하기는 하였지만 그 세력 기반을 완전히 해체시킬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곧 호족연합정권으로서의 왜왕권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珍-濟代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다. 무의 상표문에 “王道融泰 廓土遐畿”라 한 기사는 바로 이 시기의 안정된 왜국 사정을 반영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장군호와 관련하여 또 하나 정리하여야 할 것은 平西將軍 倭隋 문제이다. 倭隋의 실체에 대해서는 地方豪族說과 王族將軍說로 나누어진다. 지방호족설에서는 倭隋는 倭讚, 倭濟와 동격의 표현으로서 倭讚, 倭濟가 기본적으로 한 지역의 수장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倭隋도 역시 한 지역의 수장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열도에는 大和국가만이 아니라 出雲국가, 吉備국가, 北九州국가, 尾張국가 등 다원적인 국가가 존재한 것으로 보았다.⁹²⁾ 王族장군설은 倭隋의 倭가 倭讚, 倭濟와 같이 왜국의 왕족의 성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⁹³⁾

平西將軍의 ‘西’의 方位에 대해 武田幸男은 중국 황제가 주변 諸國의 왕들을 책봉할

92) 藤間生大, 1968 《倭の五王》(岩波新書) 139

佐伯有清, 1965 <倭の五王> 《日本古代の政治と社會》(吉川弘文館) 84

93)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吉川弘文館) 198, 356

武田幸男, 1975 <平西將軍 倭隋の解釋 -五世紀の倭國政權にふれて-> 《朝鮮學報》 77 (朝鮮學會) 24~26

때의 방위는 중국 황제의 首都를 기준으로 하지만 주변 국왕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假授할 때의 방위는 주변 국왕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이 시기 倭王의 중심지가 大和이고 平西將軍의 ‘西’는 九州地域이므로 平西將軍 倭隋는 九州地域을 鎮戍한 것으로 파악하였다.⁹⁴⁾ 이에 대해 方位將軍號는 宋王朝의 인식을 토대로 하여 띤 것이므로 왜왕을 기준으로 방위를 설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 견해에서는 平西將軍은 정원이 1명인데 倭隋가 平西將軍號를 받을 때 송에서는 이미 宗室인 臨川王 劉義慶이 平西將軍號를 받고 있어서 倭隋에게 平西將軍을 수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平西將軍은 平東將軍으로 고쳐보아야 한다고 하였다.⁹⁵⁾ 그러나 장군호의 정원은 중국 내부와 주변국 모두를 통틀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원제가 아니다. 즉 주변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원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송이 442년에 河西王 沮渠無諱에게 征西大將軍을 준 이듬해인 443년에 武都王 楊文德에게 역시 征西大將軍을 수여한 것에서⁹⁶⁾ 확인되는 바이다. 따라서 중국내에서 적용되는 정원규정을 근거로 평서장군을 진동장군으로 고쳐볼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平西將軍은 서쪽 북구주지역을 鎮戍하는 책임을 맡았으므로 渡平海北의 대상은 한반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러한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먼저 方位의 基準點을 중국 왕조의 수도로 하던지 주변 국왕의 수도로 하던지 상관없이 方位號는 여러 將軍號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를 傍證해 주는 것이 氏胡 楊氏의 경우이다. 동진은 355년에 難敵의 아들 毅에게 征南將軍을 제수하였고,⁹⁷⁾ 國에게는 鎮北將軍을 제수하였다.⁹⁸⁾ 그리고 楊盛에게는 399년에 보국장군을 주고, 404년에는 平北將軍으로 進號시켰으며, 405년에는 征西大將軍으로 삼았다.⁹⁹⁾ 중국은 주변국들의 수장이나 유력자들에게 方位將軍號를 수여할 때 일반적으로 해당국의 위치를 참조하여

94) 武田幸男, 1975 <平西將軍 倭隋의解釋 -5世紀의倭國政權について-> 《朝鮮學報》 77 (朝鮮學會) 26~27

95) 塩澤裕仁, 1993 <宋書にみる倭隋の將軍號> 《法政大學大學院紀要》 第31號 (法政大學) 80~81

96) 《宋書》 卷98 列傳第58 氏胡傳

97) 《宋書》 卷98 列傳第58 氏胡傳

98) 《宋書》 卷98 列傳第58 氏胡傳

99) 《宋書》 卷98 列傳第58 氏胡傳에 “安帝隆安三年 遣使稱蕃 奉獻方物 安帝以盛爲輔國將軍 平羌校尉仇池公 元興三年 桓玄輔晉 進盛平北將軍涼州刺史西戎校尉 義熙元年 姚興伐盛 盛懼 遣子難當爲質 興遣將王敏攻城 因梁州別駕呂瑩 求救於盛 盛遣軍次澧口 敏退 以盛爲都督隴右諸軍事征西大將軍開府儀同三司”라 한 기사 참조.

수여하였다. 따라서 東晉의 경우 隴西 지역은 서쪽이므로 대체로 서방과 관련한 작호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毅에게 征南將軍을, 國에게는 鎮北將軍을, 楊盛에게는 平北將軍을 수여한 것은 方位號를 받은 자가 반드시 그 방위 지역을 鎮戍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평서장군 왜수의 경우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다.

平西將軍의 西는 大和를 중심으로 하였을 때 그 서쪽 지역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평서장군호를 받은 倭隋는 반드시 서쪽 지역을 鎮戍한다든가 서쪽 지역을 平定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즉 平西將軍은 征虜將軍이나 冠軍將軍號를 띤 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전투에 나갈 때는 동쪽 방면으로도 갈 수 있고 서쪽 방면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倭隋가 平西將軍이기 때문에 九州지역을 鎮戍하였고 이를 토대로 ‘渡平海北’을 한반도로 설정하는 견해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V. 邊隸의 實體와 倭王 濟·興의 奄喪

1. 邊隸의 實體

왜왕 제가 일본열도 내의 諸勢力들을 일차적으로 통합한 5세기 중반 경에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제일 큰 변수로 작용한 것은 고구려의 동향이었다. 이 시기 고구려는 광개토태왕비문에서 보듯이 400년과 404년에 백제-가야-왜연합군을 격파한 후 서해의 海上交通路를 장악하여 지속적으로 백제에 압력을 가하였다.¹⁰⁰⁾ 동시에 고구려는 왜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武의 상표문에 나오는 다음의 기사이다.

句麗無道 圖欲見吞 掠抄邊隸 虔劉不已 每致稽滯 以失良風 雖曰進路 或通或不 臣亡考濟 實忿寇讐 壅塞天路 控弦百萬 義奮感激 方欲大舉

이 기사에 의하면 고구려는 邊隸을 초략하고 중국으로 가는 왜 사신의 길목을 막

100) 이는 472년에 개로왕이 북위에 올린 상표문에 “構怨連禍 三十餘載”라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아 중국과의 통교를 방해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이러한 조치는 왜가 중국과 외교교섭을 가지게 됨으로써 오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 조치는 왜와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것은 邊隸의 실체이다.

이 邊隸를 백제로 보는 것이¹⁰¹⁾ 일반적이지만 송의 邊境인 왜국을 중심으로 송이 군사권을 부여한 韓半島南部諸地域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¹⁰²⁾ 倭王武가 자칭한 도독제군사의 管轄區인 ‘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¹⁰³⁾ 있다. 이러한 견해들에는 邊隸를 백제만으로 보느냐 아니면 한반도 남부지역도 포괄하느냐 하는 차이점이 있지만 暗默적으로 왜가 백제를 지배하거나 또는 한반도 남부지역을 지배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邊隸를 宋朝의 邊方國인 倭로 파악하는 바이다.

첫째 武의 상표문에 백제는 ‘道遙百濟’에서 보듯이 백제로 표기되어 있다. 만약 백제가 왜의 邊隸였다면 동일한 문장 내에서 백제라는 정식의 국명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변예를 백제로 볼 수 없다. 둘째 邊隸의 邊은 邊方 또는 邊國이라는 의미이며 따라서 邊隸는 邊方 또는 邊國의 民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宋이 興을 책봉하는 詔書에 나오는 “作藩海外”와 “恭修職貢 新嗣邊業”의 作藩과 邊業, 그리고 武의 상표문에 나오는 “作藩于外”의 作藩은 모두 왜 자체를 가리킨다. 그렇다고 하면 邊隸는 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¹⁰⁴⁾

邊隸를 왜인이라고 하더라도 抄略된 왜인은 倭本土에 살고 있는 倭人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왜를 공격하거나 왜인들을 抄略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掠抄된 邊隸는 송으로 가는 왜의 使臣團이나 사신단을 따라가는 商團의 海路와 관련시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 왜가 송으로 가는 길은 3가지로 설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對馬海峽을 건너 한반도에 도착하여 육로로 중국에 이르는 길, 둘째는 대마해협을 건너 한반도 서해안을 해로로 북상하여 良風을 기

101) 坂元義種, 1980 <倭の五王の爵號問題 -武の自稱稱號を中心に-> 《ゼミナル日本古代史》 下 (倭の五王を中心に, 光文社) 388

川崎晃, 2001 <倭王權と五世紀の東アジア -倭王武・百濟王慶上表文と金石文-> 《古代國家の政治と外交》 (吉川弘文館) 41

佐伯有清, 1986 《日本の古代國家と東アジア》 (雄山閣出版) 42~43

102) 鈴木英夫, 1987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96~97

103) 高寛敏, 1997 《古代朝鮮諸國と倭國》 (雄山閣出版) 209~210

104) 邊隸를 宋朝의 邊方國인 왜로 파악한 견해로는 奥田尙, 1982 <倭の五王の倭について> 《追手門學院大學文學部紀要》 16집 (追手門學院大學文學部) 129 참조.

다려 황해를 횡단하여 중국의 山東半島에 이르는 길, 셋째는 구주에서 곧장 東支那海를 횡단하여 江南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다.¹⁰⁵⁾ 이 가운데 첫 번째의 길은 고구려가 존재하고 있어서 불가능하며 세 번째의 길은 7세기에 와서도 遣唐使가 渡海에 실패한 길이다. 따라서 倭五王 시대의 사신단은 두 번째의 루트를 택하였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¹⁰⁶⁾

왜의 사신단이 宋으로 가기 위해 “道遙百濟 治裝船舫”에서 보듯이 백제를 거쳐 선박을 정비한 후 良風 즉 季節風을 기다려야 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 고구려는 西海上 交通路를 장악하여 주변국들의 對中교통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백제 문주왕 2년(476)에 송에 보낸 사신이 고구려의 방해로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동성왕 6년(484)에 남제에 파견된 沙若思가 고구려군대의 방해로 역시 가지 못하였고 되돌아왔다고 한 것¹⁰⁷⁾ 등이 그 예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의 사신단은 고구려의 습격을 피하려고 하니 계절풍을 놓치게 되고 그대로 가려고 하니 고구려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雖曰進路 或通或不”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운이 좋으면 송으로 가게 되었고 그렇지 못하면 가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武의 상표문에 나오는 ‘掠抄邊隸’는 송으로 가는 왜의 遣使船이나¹⁰⁸⁾ 이 遣使船을 따라가던 商團을 고구려가 중도에 抄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 濟·興의 ‘奄喪’과 그 背景

이러한 고구려의 압박을 타개하기 위해 濟는 고구려 공격을 계획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武의 상표문에 나오는 다음의 기사이다.

臣亡考濟 實忿寇讐 壅塞天路 控弦百萬 義奮感激 方欲大舉 奄喪父兄

이 기사에 의하면 濟는 寇讐 즉 고구려가 왜의 對宋 交通로를 방해하자 고구려 공

105) 川本芳昭, 1992 <4·5世紀の中國と朝鮮·日本> 《新版 古代の日本 2 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角川書店) 170

106) 위의 주석과 같음

107)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문주왕 2년조에 “三月 遣使朝宋 高句麗塞路 不達而還”이라 한 기사와 동성왕 6년조에 “秋七月 遣內法佐平沙若思 如南齊朝貢 若思至西海中 遇高句麗兵 不進”이라 한 기사 참조.

108) 鈴木英夫, 1996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青木書店) 96

격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控弦百萬’은 비록 과장된 표현이지만 왜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일정하게 군사력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濟는 ‘奄喪’에서 보듯이 갑자기 죽었다. 濟가 갑작스럽게 죽은 이유를 분명히 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필자는 濟의 奄喪을 그의 고구려 공격 계획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控弦百萬’이 시사해 주듯이 많은 군사력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왜왕의 직할 군대만으로는 필요한 군대의 수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왜왕은 각 호족세력들에게도 군대동원을 요청하거나 때로는 강요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는 400년 및 404년에 백제를 도와 고구려와 싸우다가 크게 패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호족들 가운데는 고구려 공격 자체에 반대하거나 불만을 가진 세력도 나오게 되었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왜 조정은 군대 동원 문제를 둘러싸고 크게 분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왜왕 濟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 시기에 일어난 정치적 갈등의 소산물로 볼 수 있겠다.

제가 죽자 아들 興이 송에 사신을 보냈다. 興이 송에 사신을 보낸 시기에 대해 元嘉 7년(430)에 왜국이 사신을 보낸 기사를¹⁰⁹⁾ 근거로 하여 430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奄喪’을 고려할 때 大明 6년(462)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¹⁰⁾ 그런데 興은 아버지가 죽은 후 世子의 자격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종래에는 新王으로 즉위한 후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興이 세자로서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것은 그가 곧바로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濟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일본열도를 통합하는 등의 업적을 이룩한 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왜 조정에 준 충격은 적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격 속에서 당시 倭朝廷 내에서는 흥의 즉위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흥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함과 동시에 왕위계승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송으로부터 정식의 제수를 받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리하여 王世子의 자격으로 사신을 보냈던 것 같다. 한편 송은 흥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安東將軍倭國王을 제수하였다. 송의 이러한 조치는 흥이 국내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을 것이다.

興의 즉위 초의 이러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은 백제에도 보인다. 침류왕이 죽은 후 동생 辰斯는 385년에 조카 阿花=阿莘이 어리다는 이유로 왕위를 빼앗아 즉위하였

109) 《송서》권5 분기제5 文帝 元嘉 7년 정월조에 “是月 倭國王遣使獻方物”이라 한 기사 참조.

110) 이 문제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坂元義種, 1986 <大明四年の倭國王> 《政治社會論叢》(近藤出版社) 48~63

다.111) 그런데 그는 386년에

夏四月 以百濟王世子餘暉爲使持節都督鎮東將軍百濟王¹¹²⁾

이라 한 기사에서 보듯이 王世子の 자격으로 동진에 사신을 보냈다. 그가 왕위를 빼앗은 이듬해에 왕세자의 자격으로 사신을 보낸 것은 당시 백제 지배층 내에서 辰斯의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심하였다는 것과 그 결과 이듬해까지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진사는 東晋으로부터 작호를 받아 지배층 내의 갈등을 수습하려 하였고 그래서 왕세자의 자격으로 사신을 보내지 않았을까 한다. 이는 흥이 왕세자로서 송에 사신을 보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흥의 즉위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였음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이처럼 지배세력간의 갈등 속에서 즉위한 흥도 ‘奄喪’에서 보듯이 갑작스럽게 죽었다. 흥의 沒年에 대해서는 명기가 없다. 그런데 논자에 따라 昇明 원년(477)에 송에 사신을 보낸¹¹³⁾ 주체를 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¹¹⁴⁾ 이 견해에 의하면 흥은 477년 이후에 죽은 셈이 된다. 그러나 477년 12월에 흥이 사신을 파견하였다고 하면 이듬해 5월에 왜왕 武가 파견한 사신이 송에 도달한 것과는 불과 5개월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 왕에 의한 사신 파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477년의 사신 파견의 주체가 흥이라고 하면 그는 濟가 죽은 후 15년 내지 17년간 재위한 셈이 되어 ‘奄喪’했다는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昇明 원년의 사신 파견의 주체는 武로 보아야 하며¹¹⁵⁾ 흥은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武의 상표문에 나오는 ‘奄喪父兄’과 ‘居在諒關’에서 입증되는 바이다. ‘諒關’은 복상기간을 말하는데 이를 ‘奄喪父兄’과 연결시켜 보면 武는 아버지 濟가 갑작스레 죽자 服을 입게 되었고 흥도 갑작스레 죽자 또 服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

흥이 갑작스레 죽은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필자는 호족세력과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흥과 호족세력과의 갈등을 일으킨 요인을 짐작하게 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武의 상표문에 나오는 ‘申父兄之志’이다. 이 기사

111) 《日本書紀》 권제9 神功紀 攝政六十五年條에 “百濟枕流王薨 王子阿花年少 叔父辰斯奪立爲王”이라 한 기사 참조.

112) 《晉書》 권9 帝紀 孝武帝紀 太元11년조

113) 《宋書》 권10 분기제10 順帝 昇明 元年조에 “冬十一月己酉 倭國遣使獻方物”이라 한 기사 참조.

114) 坂元義種, 1978 <倭の五王>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吉川弘文館) 364~365

115) 鈴木英夫, 1996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青木書店) 101~102

는 興과 濟의 뜻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濟의 뜻이란 바로 고구려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興의 뜻도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 고구려 공격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흥의 이러한 정책은 군대 동원에 반대하는 호족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그 갈등 속에서 흥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해명하여야 할 것은 興이 비록 송으로부터 安東將軍倭國王의 작호는 받았지만 珍, 濟, 武처럼 한반도 諸國이 포함된 都督諸軍事號를 자칭하거나 이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珍과 濟는 일본열도 통합을 위한 정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마침내 對外交역권의 일원화를 이루었다. 후술하는 바이지만 한반도 諸國의 명칭이 들어간 都督諸軍事號는 왜왕에 의해 對外交역의 창구가 일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왜왕의 對外交易權 장악은 이제까지 독자적으로 한반도의 각 勢力과 交渉과 交流를 하고 있었던 일본열도 각 지역의 호족들에게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호족들 가운데는 倭王權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반발하는 세력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열도 통합을 적극 추진하여 왕권을 강화한 珍이나 濟는 호족들의 이러한 반발을 어느 정도 제압하였지만 濟가 갑작스럽게 죽고 정치질서가 일시적으로 흔들리게 된 興의 시기에는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그리하여 珍-濟 代에 이루어진 대외교역 창구의 일원화도 일시적으로 무너지게 되지 않았을까 한다. 그 결과 각 지역 호족들의 반발을 억제하기 어렵게 된 興은 한반도 諸國이 포함된 諸軍事號를 자칭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Ⅵ. 倭王 武의 都督諸軍事號와 高句麗 攻擊 計劃

1. 七國諸軍事號 自稱과 六國諸軍事號

興이 갑작스럽게 죽은 후 그 뒤를 이어 동생 武가 즉위하였다. 武는 즉위한 후 興 代에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武는 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號를 자칭하였다. 백제까지 포함한 7國諸軍事號를 자칭한 것은 그가 호족세력들의 반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와의 교섭과 교류를 왕권 하에 일원적으로 장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武가 상표문에서 ‘祖禰’ 즉 珍과 濟의 정복활동을 강조하고 그 결과 ‘王道融泰 廓土遐畿’하

게 되었음을 강조한 것은 이제 정치적 불안을 극복하여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룩하게 되었음을 과시하기 위한 또는 그러한 안정을 이룩하겠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둘째 무는 478년에 송에 사신을 보내 開府儀同三司를 자칭하였다. 開府儀同三司는 開府와 儀同三司가 하나로 합쳐진 것인데 開府란 府(官廳)를 열 수 있다는 것을, 儀同三司란 대우가 三司(宋朝에서는 太尉·司徒·司空)와 同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開府儀同三司는 三公待遇의 開府者라는 名譽稱號로서 그 지위는 當時人들에게 매우 관심이 높았다. 이는 宋朝가 인정해준 諸國王 가운데 開府儀同三司를 받은 諸國의 왕이 4명뿐이었다는 것에서¹¹⁶⁾ 짐작할 수 있다. 고구려의 경우 장수왕은 463년에 征東大將軍高麗王에서 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로 進號되었다.¹¹⁷⁾ 이렇게 볼 때 武가 開府儀同三司를 자칭하고 또 승인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그의 지위를 격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다.

興의 시기에 일시적으로 흔들렸던 왕권을 강화한 武는 478년에 송으로부터 使持節都督六國諸軍事號를 承認받았다. 그러나 이 작호의 除授 과정과 관련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이 ‘其餘咸假授’의 ‘其餘’가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이 ‘其餘’의 실체에 대해 開府儀同三司 이외의 칭호를 가리는 것으로 해석한 견해,¹¹⁸⁾ 武가 신하들에게 假授한 將軍號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¹¹⁹⁾ 등이 있다. 후자의 견해에서는 ‘其餘咸假授’가 《通典》 邊防門이나 《南史》 倭國傳에는 ‘其餘咸各假授’로 나오는 것에 주목하고 ‘各’을 倭王의 신하로 파악하였다.¹²⁰⁾ 그러나 필자는 ‘其餘’를 武가 신하들에게 假授한 장군호가 아니라 武 자신과 관련한 自稱號로 보는 바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其餘’를 왜왕이 신하들에게 假授한 후 除正해 줄 것을 요청한 작호라고 하면 왜왕이 자신에게 除授해 주기를 바라는 작호는 없는 셈이 된다. 종래 송은 왜왕이 요

116) 이상의 설명은 坂元義種, 1980 <倭의五王의爵號問題 -武의自稱稱號を中心に-> 《ゼミナル日本古代史》 下 (倭의五王を中心に, 光文社) 385~387 참조.

117) 《三國史記》 권제18 高句麗本紀 長壽王 51년조에 “宋世祖孝武皇帝策王爲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라 한 기사 참조.

118) 鈴木英夫, 1996 《古代의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106~107
熊谷公男, 2001 《日本の歴史》 03 (大王から天皇へ) 講談社

119) 武田幸男, 1975 <平西將軍 倭隋의解釋 -5世紀의倭國政權について-> 《朝鮮學報》 77 (朝鮮學會) 30

鈴木靖民, 2002 《倭國と東アジア》 (日本の時代史2, 吉川弘文館) 59

120) 이를 傍證하는 사례로는 劉元海가 漢王位를 僭稱한 후 그의 신하들에게 관직을 주면서 ‘其餘拜授各有差’라 한 것이 들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武田幸男, 1975 <平西將軍 倭隋의解釋 -5世紀의倭國政權について-> 《朝鮮學報》 77 (朝鮮學會) 30 참조.

청한 작호를 일정하게 승인해 주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런데 ‘其餘’를 신하에게 假授한 것이라고 하면 송은 왜왕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都督諸軍事號를 除授해준 것으로 된다. 이는 송의 작호 수여 방식과 어긋나는 것이다.

둘째 原典의 기사는 특별히 고쳐야할 근거가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송서》의 ‘其餘咸假授’를 ‘其餘咸各假授’로 고쳐보는 견해는 《通典》이나 《南史》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서들은 《宋書》보다 늦게 편찬되었다.¹²¹⁾ 따라서 後代의 史書의 記事를 근거로 前代 史書의 記事를 고쳐보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以勸忠節”의 ‘勸’은 ‘勸하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힘쓰다’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¹²²⁾ 其餘를 신하에게 가수한 장군호로 보는 견해에서는 ‘以勸忠節’을 ‘신하들에게 장군호를 가수하여’ 忠節을 勸勉하였다’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句節은 ‘(왜왕 스스로가 宋에 대한) 忠節에 힘쓰다’로 해석하여도 큰 무리는 없는 것이다.

넷째 拜授와 假授는 차이가 있다. 拜授의 경우 수여 그 자체가 종결 행위이므로 수여하는 직을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러나 假授의 경우 다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그 내용의 일부라도 나와야 한다. 왜의 경우뿐만 아니라 백제의 경우에도 신하들에게 장군호를 假授할 경우 假授한 장군호가 명기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가 된다. 본 상표문에 武가 신하들에게 假授한 장군호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假授의 대상이 왜왕의 신하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왜왕은 自假한 開府儀同三司와 假授한 其餘에 해당되는 작호를 인정해 줄 것을 송에 요청한 셈이 된다. 이 가운데 송은 開府儀同三司는 승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其餘의 구체적인 내용은 송이 478년에 武에게 승인해 준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호에는 백제가 빠져있다. 그 이유에 대해 종래의 연구에서는 武가 백제를 포함한 7國諸軍事號를 자칭하고 송에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송은 백제를 제외한 都督六國諸軍事號만 인정해 준 것으로 파악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배경으로 宋朝의 책봉을 받은 백제왕 餘慶이 고구려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新王인 文周王은 아직 송에 조공해서 襲爵을 인정받을 여유가 없을 만큼 백제가 혼란한 狀況에 빠졌다는 것과 武는 이때를 倭國王이 대대로 바랬으나 얻을 수 없었던 백제에 대한 軍事權(都督百濟諸軍事)을 宋朝로 하여금 인정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는 것이다.¹²³⁾

121) 沈約이 편찬한 《宋書》는 齊의 永明 8년(487)에 시작되어 梁명 9년(488) 2월에 완성되었다.

122) 鈴木英夫, 1996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青木書店) 106~107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이 왜왕의 諸軍事號를 승인해 줄 때의 원칙은 송으로부터 이미 작호를 받고 있었던 백제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백제를 뺀 自稱號는 승인해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武의 시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백제 개로왕은 457년에 鎮東大將軍의 작호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송은 蓋鹵王이 475년에 고구려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新王인 文周王이 사신을 보내지 못하였지만 백제를 진동대장군의 작호를 받은 나라로 여전히 인정하고 있었다. 그 까닭으로 송은 백제가 포함된 왜왕의 自稱號는 인정해 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武는 백제를 빼고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을 제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송은 왜왕이 요청한 작호에 백제가 빠져 있으므로 새로 첨가된 開府儀同三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승인해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倭는 宋에 都督諸軍事號를 요청하면서 백제를 스스로 제외하였다. 이는 濟가 加號를 받을 때 백제를 스스로 뺀 것과 궤도를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이때 武가 宋으로부터 받은 安東大將軍號는 백제가 이 시기에 받은 鎮東大將軍號보다 격이 낮았다. 이러한 사실은 武代에 왜의 국제적 지위가 백제보다 낮았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왜가 백제를 포함한 韓半島南部 諸國을 군사적으로 지배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 武의 高句麗 攻擊 計劃

즉위 후 왕권의 안정을 이룩한 武에게 주어진 과제의 하나는 고구려에 대한 공격이었다. 왜의 고구려에 대한 공격은 濟에 의해 먼저 계획되었지만 그가 갑자기 죽음으로써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興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 고구려 공격을 계획하였지만 역시 갑작스럽게 죽음으로써 또 중단되었다. 무의 상표문에 ‘使垂成之功 不獲一簣’는 濟와 興이 갑작스럽게 죽음으로써 이 계획이 한 삼태기의 공 밖에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표현이라 하겠다.

武도 즉위 후 ‘申父兄之志’에서 보듯이 父兄이 추진한 고구려 공격을 다시 계획하였다. 그렇지만 아버지 濟와 형 興의 服을 연이어 입어야 하였기 때문에 즉위 초에는 고구려를 공격할 여유가 없었다. 때문에 武는 형의 服을 벗은 후에 고구려 공격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준비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123) 坂元義種, 1980 <倭の五王の爵號問題> 《ゼミナール日本古代史》 下 倭の五王を中心に (光文社) 390

하나는 자체적으로 군대를 조련하는 것이었다. 상표문에 ‘治甲練兵’은 병장기를 수리하고 군사를 훈련시킨 것을 보여주며 ‘義士虎賁 文武効功 白刃交前 亦所不顧’는 이렇게 훈련된 군사들의 사기가 상당히 높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 훈련에는 왜왕 武의 親衛兵 뿐만 아니라 다른 호족들의 군대도 동원되어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송으로부터의 도움을 얻는 것이다. 武가 사신을 송에 보낸 것도 바로 이러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다. 상표문에 ‘若以帝德覆載 摧此疆敵 克靖方難 無替前功’¹²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송에서는 반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이듬해에 齊가 宋의 權力을 탈취하는 사태로까지 나아갔다. 더구나 송의 입장에서 고구려는 적대세력인 北魏를 배후에서 견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송은 고구려의 離叛을 초래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송은 왜의 구원병 요청에 응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武의 고구려 공격 계획은 실현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宋의 도움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과 더불어 왜 단독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 왕권강화 추진과 고구려 공격 계획은 국제관계에서나 국내 정치적으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 같다. 첫째 그는 송으로부터 2품의 安東大將軍호를 정식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앞의 왜왕들이 안동장군을 받은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그의 위상이 다른 호족들보다 훨씬 격상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로 그는 興代에 흔들렸던 한반도 제국과의 交易權을 확실히 장악하였다. 그가 백제가 포함된 七國諸軍事를 자칭한 것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고구려 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는 각 지역의 호족들로 하여금 군대를 차출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군사들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여 군사권도 장악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리하여 武는 내적으로 왜왕의 位相을 格上시킬 수 있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琦玉縣行田市の 稻荷山古墳에서 출토된 철검과 熊本縣 江田船山高분에 출토된 철검에 새겨진 ‘獲加多齒齒大王’이라는 銘文이다. 이 칼의 제작연대는 稻荷山 철검에 나오는 辛亥年이라는 干支에 의해 471년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銘文의 대왕은 武라 할 수 있다. 武가 大王을 칭하였다는 것과 이 칼이 일본열도의 東과 西에서 각각 출토되었다고 하는 것은 武가 일본열도 각 지역의 호족세력들을 보다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

124) 이 기사의 帝德을 백제의 군사지휘권을 포함한 칭호의 수여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坂元義種, 1980 <倭の五王の爵號問題 -武の自稱稱號を中心に-> 《ゼミナル日本古代史》 下 倭の五王を中心に (光文社)) 지나친 해석이다.

있음을 보여주는 物的인 증거라 하겠다.

VII. 百濟의 對倭影響

1. 倭의 對中國 交涉 再開

왜가 중국과 교섭을 한 것은 漢代부터이지만 본격적인 교섭은 曹魏 때였다. 조위가 망한 후 쯤이 들어서자 왜는 쯤에도 사신을 보냈다. 그러나 왜가 286년에 사신을 보낸 것¹²⁵⁾ 끝으로 왜의 중국과의 교섭은 단절되었다. 그후 100여 년이 지나 5세기에 들어와 왜는 중국과의 교섭을 재개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기사이다.

C-1 是歲 高句麗倭國及西南夷銅頭大師 並獻方物¹²⁶⁾

C-2 倭國獻貂皮及人蔘等 詔賜細筍麝香¹²⁷⁾

C-1의 기사에 의하면 義熙 9년(413)에 왜국은 고구려 및 西南夷의 銅頭大師와 함께 방물을 바치고 있다. 왜국이 고구려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종래 몇 가지 설이 있어왔다. 하나는 C-1의 기사에 근거하여 고구려와 왜국이 共同入貢하였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고구려가 백제를 패퇴시킨 영락 17년(407) 전투 이후 한반도 정세가 상대적인 안정기에 접어들자 고구려는 왜와 백제간의 연결을 차단하고 왜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왜에 대한 유화책을 취하였고 그리하여 왜는 선진국인 고구려의 주도로 고구려와 함께 동진에 遣使하였다는 것이다.¹²⁸⁾ 다른 하나는 C-2의 貂皮와 人蔘은 왜의 특산물이 아니라 고구려의 특산물이므로 왜와 연결지을 수 없으며 고구려가 동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전투에서 사로잡은 잡은 왜병 포로를 왜국 사신인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¹²⁹⁾

125) 《晉書》 권97 四夷傳 倭人傳에 “(太康)七年又來”라 한 기사 참조.

126) 《晉書》 권10 帝紀10 義熙 9년 동12월조

127) 《太平御覽》 권981 香部1 麝條에 인용된 《義熙起居注》

128) 池田溫, 1977 <義熙九年倭國獻方物> 《江上波夫教授古稀記念論文集》 歷史篇 (山川出版社) 39~42

129) 坂元義種, 1981 《倭の五王》 (空白の五世紀, 教育社) 69~73

鈴木靖民, 2002 <倭國と東アジア> 《倭國と東アジア》 日本の時代史2 (吉川弘文館) 23~24

공동입공설이나 왜인 포로설은 모두 왜국이 고구려의 특산품으로 되어 있는 貂皮와 人蔘을 바쳤다고 한 것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 朝獻品을 근거로 하여 共同入貢하였다는가 심지어 왜병 포로를 왜국 사신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각국의 사신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 우연히 시기가 같을 수도 있으며 또 月을 달리하여 遣使하였다고 하더라도 史官이 한 해로 묶어서 정리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왜는 高句麗·銅頭大師와 같은 해에 東晉에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고 보는 것, 즉 單獨入貢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시기에 송에 사신을 보낸 倭王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양서》 왜전에는 “晉安帝時 有倭王讚 …”¹³⁰⁾이라 나오고 있으므로 이 때 東晉에 사신을 보낸 왜 왕은 讚으로 볼 수 있겠다.¹³¹⁾ 이 시기에 왜가 東晉에 사신을 파견하게 된 데는 404년과 404년에 고구려와의 전투에서의 패배가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즉 백제를 도와 고구려를 공격하였다가 당한 패배는 왜의 정치적 상황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이러한 충격을 극복하면서 왜는 점차 국제관계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 같다. 그에 따라 왜는 종래 백제 일변도의 대외관계에서 벗어나 東晉과의 교섭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던 것 같다.

그렇지만 왜는 150여년 동안 중국과의 교섭이 없었기 때문에 通譯을 비롯하여 송으로 가는 交通路 등 여러 면에서 한계성에 부딪혔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당시로서는 백제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백제는 이미 372년에 근초고왕이 鎮東將軍領樂浪太守의 작호를 받았고 그 이후 5차례에 걸쳐 동진과 교섭을 하고 있어서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백제는 왜와의 우호관계도 두터이 하여 397년에는 태자 진지를 왜에 파견하여 和通관계를 수립하였으며 더구나 腆支王은 倭國에서 귀국할 때 왜병 100명의 호위를 받기도 하는 등 그 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가 東晉과의 교섭을 추진하자 백제는 通譯이라든가 海路의 안내 등을 비롯하여 外交交渉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점은 521년 신라가 양나라와 처음으로 통교를 할 때 백제가 도움을 제공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에서¹³²⁾ 입증되리라 본다. 이러한 추론이 성립된다고 하면 왜는 백제를 매개로 하여 동아시아 무대에 頭角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130) 《梁書》 권54 列傳48 諸夷 東夷 倭傳

동일한 내용이 《南史》 권79 列傳 夷貊 下 倭傳에도 나온다.

131)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吉川弘文館) 344~345

132) 《梁書》 권54 諸夷 新羅傳에 “普通二年王募名秦始使 使隨百濟進獻方物”이라 한 기사 참조.

이 시기에 왜 사신이 가지고 간 朝獻品인 貂皮와 人蔘은 고구려의 특산품이다. 이는 《建康實錄》에 인삼과 초피가 고구려의 특산품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서¹³³⁾ 알 수 있는 바이다. 이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와의 共同遣使說이라든가 고구려가 왜병 포로를 왜의 사신으로 둔갑시켰다는 설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朝獻品の 경우 꼭 自國產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他國에서 求得한 물품을 보낼 수도 있다. 이점은 고구려가 자국의 產品이 아닌 扶餘產 황금과 涉羅產 珂를 北魏에 보낸 것에서¹³⁴⁾ 방증이 된다. 따라서 왜도 자국산이 아닌 물품을 朝獻品으로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왜가 貂皮와 人蔘을 求得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기 왜의 對外交역의 주된 窓口가 백제였다는 점이다. 백제는 4세기초에 樂浪郡과 帶方郡이 소멸된 이후 地政學的인 조건을 활용하여 海上貿易의 거점 역할을 하였다.¹³⁵⁾ 그리하여 다양한 물품들이 백제를 통해 국제적으로 교역되었다. 夢村土城과 風納土城에서 출토된 西晉 및 東晉代의 도자기 등은¹³⁶⁾ 백제가 중국과 활발한 교역을 하였음을 보여주며 또 근초고왕이 왜의 사신에게 珍寶를 보여주면서 五色彩絹, 角弓箭, 鐵鋌 등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¹³⁷⁾ 등은 백제와 왜와의 교역도 활발하였음을 반영해 준다. 더구나 인삼은 고구려의 특산품만이 아니라 백제의 특산품이기도 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本草經集註》에 나오는 다음의 기사이다.

(人參)乃重百濟者 形細而堅白 氣味薄於上黨 次用高麗 高麗卽是遼東 形大而虛軟 不及百濟 百濟今臣屬高麗 高麗所獻 兼有兩種¹³⁸⁾

133) 《建康實錄》 南濟 高麗傳에 “其官位加長史司馬參軍之屬…國有銀山 採爲貨 並人參貂皮 重中國綵緞 丈夫衣之 亦重虎皮”라 한 기사 참조. 이 기사는 현행 《南齊書》 고려전의 缺頁중의 佚文으로 추정되고 있다.

134) 《三國史記》 권제19 高句麗本紀 文咨明王 13년조에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扶餘 珂則涉羅所產 扶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二品所以不登王府 實兩賊是爲”이라 한 기사 참조. 동일한 내용이 《魏書》 권100 列傳88 高句麗傳에도 나온다.

135) 이에 대해서는 李賢惠, 1998 《韓國古代의 生産과 交易》 (一潮閣) 307~314쪽 및 李道學, 1995 《백제고대국가연구》 (일지사) 181~184쪽 참조.

136) 이 시기에 출토된 중국제 물품에 대해서는 권오영, 2002 <풍납토성 출토 외래 유물에 대한 검토> 《백제연구》 36집 (충남대 백제연구소) 참조.

137) 《日本書紀》 권제9 神功紀 46년조에 “時百濟肖古王深之歡喜而厚遇焉 仍以五色彩絹各一疋及角弓箭并鐵鋌四十枚幣爾波移 便復開寶藏以示諸珍異”라 한 기사 참조.

138) 陶弘景 編 尙志鈞·尙元勝 輯校, 1994 《本草經集註》(輯校本), 人民衛生出版社, 207. 이 책은 梁나라의 陶弘景(452~536)이 《神農本草經》에 주석을 단 책을 말한다.

이 기사에 의할 때 백제의 인삼은 가늘고 단단하고 희며 그 맛이 담박하여 크기는 하나 속이 비고 연한 고구려 인삼보다 품질이 높았다. 그래서 고구려는 백제의 인삼도 함께 중국에 보내기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인삼이 고구려만의 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왜는 백제로부터 인삼이나 貂皮 등을 求得하여 朝獻品으로 가져갔을 수도 있고, 또는 백제가 자신이 求得한 것을 왜의 사신에게 주어 朝獻하게 하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한다.

2. 府官制와 私假制의 실시

1) 府官制

魏晉南北朝 시대에 중국의 官制 가운데 특징적인 것의 하나는 이른바 府官制이다. 이 시대에는 統軍加節之制에 의해 州刺史와 將軍들의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이들은 독자적으로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刺史府와 將軍府와 같은 幕府를 개설하였다. 幕府의 설치는 남북조 국가가 독자적인 국내의 지방세력과 주변제국의 군장들에게 책봉을 통하여 그 자율성을 보장하고 막부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각종 官爵을 수여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는 지방의 독자적인 호족세력을 州刺史에 임명하여 주민에 대한 民政權을 부여하였고, 아울러 여러 州나 郡을 묶어 軍事上の 관할구역인 都督區를 설정하고 그 장관인 都督諸軍事에 이들 호족을 임명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軍事權도 인정하였던 것이다.¹³⁹⁾

중국에서 府官制는 都督이나 將軍 또는 州刺史가 幕府를 열고 막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관료를 둔 제도로서 府主와 다수의 屬官으로 구성되었다. 屬官 중에는 長史·司馬·參軍이 있어 府主를 보좌하여 막부의 실무 행정을 담당하였다. 이 가운데 長史는 主吏의 업무를, 司馬는 主將의 업무를, 參軍은 諸曹의 일을 맡았다.¹⁴⁰⁾

이 시기에 중국의 주변국가들도 중국왕조와 책봉관계를 맺은 후 幕府를 설치하여

139) 幕府의 출현과 성격에 대해서는 金翰奎, 1982 《古代中國の世界秩序研究》 (일조각) 282~382; 金鍾完, 1995 《中國南北朝史研究 - 朝貢·交聘關係를 중심으로 -》 (일조각) 66~71을 참조할 것

140) 《宋書》 卷第39 志第29 百官 上에 “長史司馬舍人秦官…長史從事中郎主吏 司馬主將 主簿祭酒舍人主閣內事 參軍掾屬令史主諸曹事”라 한 기사 참조.

屬官들을 두었다. 이 속관들은 周邊諸國의 君長들이 중국으로 使行할 때 府主인 군장을 대신하여 과견되기도 하였다.¹⁴¹⁾ 고구려의 경우 고국원왕은 355년에 前燕으로부터 征東大將軍號를¹⁴²⁾ 받았고, 광개토태왕대에 와서 처음으로 將軍府에 將士·사마·참군을 두었다.¹⁴³⁾

백제의 경우 근초고왕은 372년에 동진으로부터 ‘鎮東將軍領樂浪太守’를 받았다.¹⁴⁴⁾ 그러나 ‘使持節·都督·諸軍事·將軍·王’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작호는 餘暉=辰斯王이 386년에 王世子로서 동진으로부터 ‘持節都督鎮東將軍百濟王’¹⁴⁵⁾이라는 작호를 받은 것이 처음이다. 그후 腆支王=餘映은 416년에 송으로부터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將軍百濟王’¹⁴⁶⁾이라는 작호를 받았다. 이리하여 백제는 將軍府를 두게 되었다.

將軍府를 두면서 백제는 府官을 설치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송서》에

少帝景平二年 映遣長史張威 詣闕朝貢¹⁴⁷⁾

이라 한 기사에 나오는 長史이다. 그렇다고 하면 사마·참군도 설치되었다고 하겠다. 長史·司馬 등의 부관을 설치한 시기가 언제인지 분명히 하기 어렵지만 張威가 424년에 長史의 職을 띠고 있었으므로 늦추어 보아도 ‘使持節·都督·諸軍事·將軍·王’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작호를 받은 腆支王 12년(416)에는 설치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¹⁴⁸⁾

왜의 경우 府官制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司馬 曹達이다. 425년 송에 사신으로 갔던 司馬曹達의 司馬를 姓氏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¹⁴⁹⁾ 魏晉南北朝時代 이래 통용되던 幕府의 屬官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¹⁵⁰⁾ 司馬 曹達의 司馬가 府官이라고 하

141) 金翰奎, 1982 《古代中國的世界秩序研究》 (일조각) 282~382

142) 《三國史記》 권제18 高句麗本紀 故國原王 25년조

143) 《梁書》 高句麗傳에 “以句麗王安爲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 安始置長史司馬參軍官”이라 한 기사 참조.

144) 《晉書》 권9 帝紀 簡文帝紀 咸安 2년(372)조에 “咸安 二年 春正月辛丑 百濟林邑王各遣使貢方物 六月 遣使拜百濟王餘句爲鎮東將軍領樂浪太守”이라 한 기사 참조.

145) 《晉書》 권9 帝紀 孝武帝紀 太元 11년조

146) 《宋書》 권95 列傳第57 百濟傳

147) 《宋書》 권95 列傳第57 百濟傳

148) 府官의 설치시기를 辰斯王代로 보는 견해도 있다. 鈴木靖民, 2002 《倭國と東アジア》 日本の時代史2 (吉川弘文館) 41~42 참조.

149) 藤間生大, 1968 《倭の五王》 (岩波書店) 85

150) 司馬가 姓인가 官名인가에 대한 綜合的 整理는 坂元義種, 1981 《倭の五王》 空白の五世紀 (教育社) 106~110 참조.

면 막부의 설치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왜왕은 중국으로부터 장군에 책봉되어야 한다. 그러면 왜왕이 작호를 받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5세기에 들어와 왜와 중국과의 교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왜왕 찬이 413년에 동진에 사신을 보냄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때 讚은 동진으로부터 아무런 작호를 받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후 420년에 송이 건국되자 讚은 이듬해인 421년에 송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기사이다.

高祖永初二年 詔曰 倭讚萬里修貢 遠誠宜甄 可賜除授 太祖元嘉二年 讚又遣司馬曹達 奉表獻方物⁵¹⁾

이 기사에서 ‘萬里修貢’은 왜왕 찬이 송에 직접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이 使行은 송 건국 다음 해이기 때문에 宋의 建國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宋 高祖는 왜왕 讚에게 조서를 내려 ‘可賜除授’하였다. ‘除授’는 任官의 뜻이 있으므로¹⁵²⁾ 이때 讚은 어떤 형태로든 爵號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 작호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 왕인 珍이 安東將軍倭國王을 받은 것에서 미루어 보면 讚도 安東將軍倭國王을 받지 않았을까 한다.¹⁵³⁾ 讚은 송으로부터 將軍號를 받은 것을 계기로 將軍府를 설치하고 府官으로 司馬를 두었고¹⁵⁴⁾ 425년에는 사마 曹達을 송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던 것이다.

이 부관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관제이다. 그런데 왜는 413년에 東晉에 사신을 파견하기 이전에는 중국 왕조와 교섭이 없었다. 그래서 왜는 중국의 제도에 대한 知識이나 識見이 별로 없었으며 주로 백제를 통해 先進文物과 制度를 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事例로는 單名의 사용을 들 수 있다. 讚이나 達은 單名인데 이러한 單名 사용은 백제의 영향이었던 것이다.¹⁵⁵⁾ 한편 曹達의 경우 姓이 중국식 單字姓인 曹이다.

151) 《宋書》 권97 列傳第57 夷蠻 倭國傳

152) 坂元義種, 1981 《倭の五王 -空白の五世紀-》(教育社) 92

153) 坂元義種, 1981 《倭の五王 -空白の五世紀-》(教育社) 101~103

鈴木靖民, 1985 <倭の五王と内政> 《日本古代の政治と外交》(續群書類從完成會) 7

山尾幸久, 1983 《日本古代王權形成史研究》(岩波書店) 306

이와는 달리 430년에는 倭國王만 보이고 將軍號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 시기에 찬은 倭國王號만 받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岡田英弘, 1977 《倭國》(中公新書) 135 및 연민수, 1998 《고대한일관계사》(혜안) 115~116 참조.

154) 鈴木靖民, 2002 《倭國と東アジア》(日本の時代史2, 吉川弘文館) 54~55

155) 前之園亮, 2001 <倭の五王・司馬曹達・百濟府官の單名について> 《紀要》 제45호 (共立女子短期大學文科) 56~57

그래서 그를 단순히 渡來者로만 보는 견해도 있다.¹⁵⁶⁾ 물론 그의 출자를 분명히 하기 어렵지만 이 시기 왜와 긴밀한 교류를 한 나라는 백제였고 백제에는 중국식 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있었던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曹達도 중국계 성씨를 가진 백제 출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¹⁵⁷⁾

이처럼 백제의 제도는 倭에게 典範이 되었고 또 많은 백제계 출신들이 왜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讚은 송으로서 安東將軍倭國王의 爵號를 받은 후 백제의 府官制를 본받아 將軍府에 司馬 등의 府官을 설치하고 百濟系 관료들을 登用하지 않았을까 한다.

2) 私假制

魏晉南北朝時期 중국에서는 독자적인 통치권을 위임받은 使持節·都督諸軍事號·將軍號·刺史號의 관작을 받은 관료들이 자신이 추천하거나 임용한 屬吏들을 관할 내의 太守·縣令職에 兼帶시키는 것이 관례였다.¹⁵⁸⁾ 私假制는 중국의 제도를 典範으로 한 것으로서 중국 주변의 國王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官職을 臨時로 授與한 후 중국에 대해 正式으로 除授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私假는 ‘私署’·‘假行’·‘行’·‘假授’로도 표기되었다. 이 사가제는 현재로서는 동아시아諸國 가운데 백제와 왜에만 보이고 있다.

私假制는 幕府制와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중국에서 막부제가 실시된 것은 南北朝時代라고 하는 大分裂期였다. 특히 막부는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이 사실상 소멸된 상황에서는 독립적인 정권의 권력기관으로 기능을 하게 되고 국가권력을 스스로 분해시키는 모순적 요소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막부체제의 遠心力的 작용은 마침내 帝國을 해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권력의 分散狀況을 고착화하여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분열시대를 장기간 지속하게 하는데 중요한 몫을 하였던 것이다.¹⁵⁹⁾ 이는 곧 미약한 皇帝權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백제의 사가제는 毗有王=餘毗 24년(450)에 처음 보이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지왕대에 이미 행해졌다. 이후 이 사가제는 개로왕대에도 행해졌고¹⁶⁰⁾ 웅진으로 천도

156) 鈴木靖民, 2002 《倭國と東アジア》(日本の時代史2, 吉川弘文館) 54

157) 高寛敏, 1997 《古代朝鮮諸國と倭國》(雄山閣出版) 199

158) 이성규, <중국의 분열체제모식과 동아시아 제국> 《한국고대사논총》 8 (한국고대사회연구소) 270

159) 김한규, 1985 <남북조시대의 중국적 세계질서와 고대한국의 막부제> 《한국고대의 국가와 사회》(일조각) 130

한 이후 동성왕대에도 행해졌다.¹⁶¹⁾ 그런데 전지왕대 이후 동성왕대에 이르기까지는 백제의 왕권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¹⁶²⁾ 백제에서 사제제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실시되었던 것이다. 즉 실권귀족들이 정치운명을 해 나가는 상황에서 백제 왕실은 당시의 有力한 귀족들에게 작호를 수여하고 이를 통해 왕실의 立地를 안정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는 중국의 남북조의 막부체제가 분산된 지방세력을 국가체제내로 통합함과 동시에 지방세력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분열시대를 장기화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과 궤도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에서는 어떻게 하여 사가제가 실시된 것일까. 그 배경은 5세기 당시의 왜국의 상황과 연관시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日本考古學界에서는 3세기 후엽 내지 늦어도 4세기초에 일본열도에서는 前方後圓墳을 공유하는 聯合政權이 성립되었으며 이를 前方後圓墳體制라고 한다. 전방후원분의 분포 상황이나 규모를 볼 때 大阪평야나 奈良분지가 중심이고 그 주변지대에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전방후원분이 존재하고 있다.¹⁶³⁾ 前方後圓墳體制는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정치적 통합을 상징하고 이것을 大和政權 혹은 倭政權으로 파악한 것이다.¹⁶⁴⁾ 그래서 전방후원분은 주변 각 지역의 전동이 통합되고 재편된 창조물로 파악되었으며¹⁶⁵⁾ 前方後圓墳 외에 前方後方墳, 圓墳, 方墳 등 墳丘 형태의 차이는 전방후원분의 피장자를 정점으로 한 階層序列를 반영으로 추정되었다.¹⁶⁶⁾

그러나 일본열도 각 지역의 전방후원분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大和政權 쪽에서의 영향뿐만 아니라 大和政權 쪽으로의 영향력도 동등하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전방후원분이 선행하여 성립한 지역은 정권의 중추가 아니라 주변지역이라는 것이 판명

160) 《宋書》 百濟傳에 蓋鹵王이 4년(458)에 餘紀 등 11명에게 行冠軍將軍右賢王 등의 작호를 가수한 후 정식 제수를 요청한 것에서 알 수 있다.

161) 《南齊書》 百濟傳에 동성왕이 남제에 대해 490년에 7명의 신하에게, 495년에는 8명의 신하에게 冠軍將軍都將軍都漢王 등을 假授하고 정식의 제수를 요청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

162) 논자에 따라서는 백제왕이 자신의 신하에게 왕호를 수여하였으므로 백제왕은 대왕과 같은 존재로 되었고 이를 토대로 개로왕대에 왕권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吉川弘文館) 138~144

163) 日本列島各地에 분포한 前方後圓墳의 規模나 集中度에 대해서는 原島禮二·石部正志·今井堯·川口勝康, 1983 《巨大古墳と倭の五王》(青木書店) 참조.

164) 전방후원분체제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는 北條芳隆, 2000 <前方後圓墳의 全開와 그 多様性> 《韓國의 前方後圓墳》(백마학술총서 11,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30~33쪽 참조.

165) 近藤義郎, 1983 《前方後圓墳の時代》(岩波書店) 참조

166) 都出比呂志, 1991 <日本古代の國家形成論序說 - 前方後圓墳體제의提唱> 《日本史研究》 343號 참조

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大和朝廷의 권력기반이 奈良분지나 大阪평야의 彌生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양성되었다는 想定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鐵器의 파급도 이 지역은 후진시대였지 결코 타 지역보다 우위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¹⁶⁷⁾ 그래서 大和정권의 성립과정은 奈良분지나 大阪평야의 토착세력의 정치적 성장결과가 아니라 주변 지역 諸勢力의 적극적 결집과 지지의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¹⁶⁸⁾

한편 畿內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大古墳을 만들고 있는 出雲·吉備·北九州·尾長 등의 大豪族을 단순한 豪族이 아니라 국가의 首長으로 보고 4~5세기의 일본열도에는 出雲국가, 吉備국가, 北九州국가, 尾長국가라고 하는 다원적인 국가가 존재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¹⁶⁹⁾ 이 세력들을 국가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지의 여부는 且置 하더라도¹⁷⁰⁾ 이 견해에서 주목되는 것은 5세기대의 倭國은 강력한 中央集權國家가 아니라 다원적인 정치체제의 구조를 가진 연합체라는 것이다. 이점은 대화왕권이 直轄領인 屯倉을 西日本各地에 설치한 것은 6세기 전반을 올라가지 않으며, 더욱이 각 지역의 國에 國司를 파견한 것은 7세기 중엽의 일이므로 그 이전의 지방통치는 在地 豪族들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과 상통한다.¹⁷¹⁾

따라서 5세기의 倭國은 각 지역의 수장에 의해 共立된 聯合政權으로서 그 범위는 九州 中部로부터 關東 지역에 이르며 왜왕은 바로 이 연합정권을 대표하는 大首長이라 할 수 있다. 이리하여 5세기 중엽 이후에 이르면 畿內를 중심으로 한 大和정권은 점차 초월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東征·西服·渡平海北으로 표현되는 왜왕 珍과 濟의 征服활동은 왜왕의 지위를 格上시키는 토대를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5세기에 들어와 大和세력은 日本列島內에서 優位를 잡기는 하였지만 畿內와 각 지역에는 유력한 호족들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大和왕권은 아직까지 이들 세력들을 왕권 하에 완전히 편제해 넣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倭王權은 중앙과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에 대해 일정한 대우를 해주어야 하였고 그 방법으로 활용된 것이 私假制가 아닐까 한다. 그리하여 438년에 珍은 倭隋 등 13명에게 平西將軍 등의 장군호를 私假하고, 451

167) 이상의 서술은 北條芳隆, 2000 <前方後圓墳의 全開와 그 多樣性> 《韓國의 前方後圓墳》 (백마학술총서 11,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40~41쪽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168) 北條芳隆, 2000 <前方後圓墳의 全開와 그 多樣性> 《韓國의 前方後圓墳》 (백마학술총서 11,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42

169) 藤間生大, 1968 《倭の五王》 (岩波書店) 139

170) 이를 地域政權으로 부르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있다. 延敏洙, 1998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29~130

171) 延敏洙, 1998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29

년에 濟도 23명에게 軍號·郡號를 私假한 후 송에 정식 제수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 요청에 대해 송은 모두 승인을 하였다.

그런데 왜는 5세기초까지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섭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왜가 선진문물을 받아들인 源泉地는 백제였다. 앞에서 언급한 府官제도 백제로부터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왜의 사가제도 백제의 제도를 典範으로 하여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현재의 자료에 의할 때 왜의 경우 438년경에 이미 사가제가 보이고 있지만 백제는 毗有王=餘毗 24년(450)에 처음으로 보인다는¹⁷²⁾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왜가 백제의 私假제도를 본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어렵게 한다. 그렇지만 백제의 사가제는 비유왕 24년(250)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고 볼 필요는 없다. 비유왕대의 이 기사는 사가제 실시의 하한선을 보여주는 것이지 최초의 실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백제에서 사가제 실시 시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이 사가제가 府官제의 발달과 짝하여 나온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대략의 시기는 추정해 볼 수 있다. 백제에서의 府官制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늦어도 전지왕 12년(416)에는 실시되었다. 따라서 백제에서의 私假제도 늦어도 416년경에는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왜의 사가제는 백제의 제도를 본받아 실시된 것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

3. 蓋鹵王의 上表文과 倭王 武의 上表文의 比較

《魏書》 백제전에는 蓋鹵王이 北魏에 보낸 上表文이 실려 있고 《송서》 왜국전에는 倭王 武가 송에 보낸 上表文이 실려 있다. 이 두 상표문에는 5세기에 백제와 왜의 고구려에 대한 인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백제왕실과 왜왕실의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어서 주목되어도 좋을 것이다.

이 두 상표문은 중국의 고전을 다수 인용하고 있다.¹⁷³⁾ 물론 두 상표문에 공통하는 語句는 所統(驅)率과 壅塞의 둘에 불과하며 완전히 공통하는 것은 壅塞뿐이라는 지적도 있지만¹⁷⁴⁾ 두 상표문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흡사하다. 따라서 양자를 비교·검토하

172) 《宋書》百濟傳에 “毗上書獻方物 私假臺使馮野夫西河太守 …”라 한 기사 참조.

173) 引用文句의 出處는 內田 清에 의해 정리된 바 있다. 內田清, 1996 <百濟·倭の上表文의 原典につい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 87號, <表六> 百濟·倭上表文類同語句出處一覽表 참조

면 5세기 당시 백제와 왜의 대외인식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상표문을 보면 먼저 과거 선조들의 업적을 기린 후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군사적 도움을 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백제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상표문에서 과거 선조의 업적을 기린 부분은 다음과 같다.

臣與高句麗源出扶餘 先世之時 篤崇舊款 其祖釗輕廢隣好 親率士衆 凌踐臣境 臣祖須整 旅電邁 應機馳擊 矢石暫交 梟斬釗首 自爾已來 莫敢南顧

이 기사는 백제는 고구려와 처음에는 독실한 관계였으나 釗=故國原王 때에 관계가 악화되어 마침내 須=近仇首王이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것을 과시하였다.

다음 백제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래의 기사이다.

自爾已來 莫敢南顧. 自馮氏數終 餘燼奔竄 醜類漸盛 遂見凌逼 構怨連禍 三十餘載 財殫力竭 轉自孱跋 ….

이 기사는 北燕의 멸망으로 고구려가 강성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백제는 고구려의 압박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악화된 관계가 이후 30여년간 지속되어 재물을 다하고 힘도 다하여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하였다.

백제가 北魏에 대해 군사원조를 요청하게 된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기사이다.

今瓊有罪 國自魚肉 大臣彊族 戮殺無已 罪盈惡積 民庶崩離 時滅亡之期 假手之秋也 且馮族士馬 有鳥畜之戀 樂浪諸郡 懷首丘之心 天威一舉 有征無戰 … 且高麗不義 逆詐非一 外慕隗囂 藩卑之辭 內懷凶禍 冢突之行 或南通劉氏 或北約蠕蠕 共相唇齒 謀陵王略 … 今若不取 將貽後悔

이 기사에서 백제는 고구려가 북위와 외교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남조 송과 북쪽의 蠕蠕과도 교섭을 가지는 등 二重외교를 하는 것을 고발하고, 지금의 고구려 상황은 장수왕이 대신들을 肅淸하는 바람에 지배세력 사이에 갈등이 심하며, 고구려에 예속되어 있는 北燕 집단과 樂浪諸郡의 중국인들도 언제든지 고구려를 이탈할 수 있

174) 이 두 上表文에 同類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川本芳昭, 1998 <五胡における中華意識の形成と部の制の傳播> 《古代文化》 제476호 참조

을 것 같으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왜왕 武의 상표문의 내용도 먼저 과거 선조들의 업적을 기린 후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군사적 도움을 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조상의 업적을 기린 부분은 다음의 기사이다.

自昔祖禰 躬擐甲冑 跋涉山川 不遑寧處 東征毛人 五十五國 西服衆夷 六十六國 渡平海北 九十五國 王道隆泰 廓土遐畿.

이 기사는 무의 祖禰=祖父가 東征毛人, 西服衆夷, 渡平海北한 업적을 과시하고 그 결과 나라가 평안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왜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래의 기사이다.

道遙百濟 裝治船舫 而句驪無道 圖欲見吞 掠抄邊隸 虔劉不已 每致稽滯 以失良風 雖曰 進路 或通或不 臣亡考濟 實忿寇讐壅塞天路 控弦百萬 義聲感激 方欲大舉 奄喪父兄

이 기사는 고구려가 邊隸 즉 倭人을 抄略하고 중국으로 가는 길을 막음으로 통교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과 濟와 興은 이러한 어려움을 초래한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를 하였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으로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왜가 송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至今欲練甲治兵 申父兄之志 義士虎賁 文武効功 白刃交前 亦所不顧 若以帝德覆載 摧此 疆敵 克靖方難 無替前功

이 기사는 武가 父兄의 뜻을 이어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과 송이 도와주면 고구려를 꺾어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군사원조를 요청하였음을 보여준다.¹⁷⁵⁾

이처럼 백제와 왜는 상표문에서 보듯이 고구려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백제가 고구려를 豺狼으로 표현한 것과 왜가 고구려를 無道하다고 표현한 것이 공통이다. 둘째로 양국이 고구려를 征討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공통이다. 셋째로 백제와 왜는 독자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제는 北魏에,

175) 왜왕 무의 상표문의 내용을 過去-祖先의 征服事業, 現在-高句麗의 無道, 將來-高句麗征討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는 鈴木英夫, 1996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의 '第四章 倭王武 上表文の基礎的 考察' 참조.

왜는 宋에 군사원조를 요청한 것도 공통이다. 넷째 북위와 송은 모두 백제와 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공통이다.

상표문에 보이는 이러한 공통성이 나오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백제와 왜가 고구려에 대해 가진 역사적 경험이 공통적이라는 점이다.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한반도의 상황은 백제와 고구려가 中心軸을 이루어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백제 近肖古王은 371년 平壤城 전투에서 고구려의 故國原王을 전사시키기도 하였지만¹⁷⁶⁾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적극적인 南進 공격으로 한 때는 歸王請命을 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 빠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백제의 고구려에 대한 인식은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왜도 이 시기에 고구려와 군사적으로 충돌하였다. 왜가 고구려와 충돌하게 된 것은 백제 때문이었다. 백제는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 왜를 끌어들이려 하였고 그래서 397년에 태자 腆支를 왜에 보내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쳤다. 廣開土大王碑文의 ‘百殘違誓 與倭和通’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백제의 外交策에 부응하여 왜는 400년에 군대를 보내 백제를 도와 가야와 함께 신라를 쳤다가 대패하였고, 404년에는 帶方界를 공격하였다가 역시 대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왜는 고구려 대해 적대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저변에는 이때의 敗北의식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상표문은 이러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인식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다. 그러나 두 상표문의 구조가 유사하게 된 데는 상표문을 작성한 지식인들의 활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제는 일찍이 낙랑·대방군과 빈번히 접촉하여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4세기에는 이미 유학과 도가에 이해가 깊은 지식인들이 다수 있었던 것이다. 근초고왕대에 書記를 편찬한 박사 高興, 왜에 유교경전을 전해준 阿直岐와 王仁, 近仇首王이 고구려 平壤성을 공격한 후 계속 북진하려 하자 老子 《道德經》을 인용하여 만류한 장군 莫古解 등이 대표적인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유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백제는 지식인들을 왜에 파견하였다. 應神천황대에 백제가 유교 경전에 능통한 阿直岐와 王仁을 보내고 아울러 《論語》와 《千字文》도 전한 것이¹⁷⁷⁾ 그 예가 된다.

5세기에 들어와서 백제에서 파견된 지식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熊本縣江田船山古墳에서 출토된 鐵劍의 銘文이다. 이 철검은 稻荷山古墳에서 출토된 철검

176)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故國原王 40년조에 “冬十月 百濟王率兵三萬 來攻平壤城 王出師拒之 爲流矢所中 是月二十三日薨”이라 한 기사 참조.

177) 《古事記》 중권 應神記

과 같이 471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作刀者名伊太於 書者張安也’라는 명문이 있다. 伊太於是 칼을 만들었고 張安은 銘文을 썼다. 伊太於是 그 이름으로 보아 왜인이라 할 수 있지만 張安은 중국식 이름이므로 왜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백제에는 中國系 백제관료가가 다수 있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南齊書》 백제전의 다음의 기사이다.

行龍驤將軍樂浪太守兼長史慕遣 行建威將軍城陽太守兼司馬王茂 兼參軍行振武將軍朝鮮太守張塞 行揚武將軍陳明¹⁷⁸⁾

이 기사에는 慕氏, 王氏, 張氏, 陳氏 등이 나오는데 이들은 姓氏로 미루어 보아 중국계 백제관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張氏의 경우 전지왕대에 東晉에 사신으로 파견된 張威도 있다. 이 張氏는 江田船山古墳出土 鐵劍 銘文의 書者인 張安과 통하므로 張安은 백제에서 건너간 지식인 중의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 시기에 왜에는 백제에서 건너온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文章의 작성 등 學文 활동에 從事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개로왕의 상표문은 472년에 작성되었고 왜왕 무의 상표문은 478년에 작성되어 시간 차이도 그다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두 상표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장 구조가 비슷하며 고구려에 대한 인식도 공통적이다. 이렇게 볼 때 왜왕 무의 상표문은 백제에서 건너간 지식인들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한다. 즉 이들은 한성이 함락되자 자신의 儒學에 대한 재능을 살려 倭國으로 망명한 자일 수도 있고, 혹은 백제가 왜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얻기 위해 왜에 보낸 자일 수도 있다. 이들은 그대로 왜에 머물게 되었고 왜왕 武에 의해 등용되어 상표문을 기초하는데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¹⁷⁹⁾ 그 결과 蓋鹵王의 상표문과 武의 상표문이 유사한 구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178) 《南齊書》 권58 東南夷 百濟傳

179) 內田清, 1996 <百濟・倭の上表文の原典につい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 86호, 117쪽. 그러나 백제에서 亡命해온 지식인이 武의 상표문을 작성했다는 견해를 聽說로 취급하는 견해(川崎晃, <倭王權と五世紀東アジア-倭王武・百濟王慶上表文と金石文-> 《古代國家の政治と外交》 (吉川弘文館) 참조)도 있다.

VIII. 《三國史記》에 보이는 百濟·新羅와 倭의 關係

1. 百濟와 倭의 關係

백제와 고구려는 4세기 중반 이후 4세기말까지 빈번히 전쟁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5세기에 들어오면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변화를 보인다. 광개토대왕비문에는 400년의 백제·가야·왜 연합군과 고구려·신라 연합군의 대결과 404년 백제·왜연합군과 고구려와의 帶方界 전투 이후 양 세력 사이에 전투 기사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고 《삼국사기》에도 전지왕의 즉위 이후 고구려와의 전투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비문이 보여주는 상황과 《삼국사기》가 보여주는 상황이 일정하게 부합되는 면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배경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백제는 4세기말 이후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여러 차례 패배함으로써 대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396년에 阿莘왕은 고구려왕에게 항복을 하면서 王弟와 大臣 10여명을 인질로 보내야 하였고, 백성들 가운데는 빈번히 되풀이되는 전쟁에 시달려 심지어 백제를 이탈해 나가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¹⁸⁰⁾ 이 시기에 백제 지배층 내에서 고구려와의 대결을 주도한 것은 권력을 잡고 있던 眞氏세력이었다. 그러나 되풀이된 고구려와의 대결에서 영토의 상실 등 커다란 피해를 입은 아신왕은 王舅 眞武를 좌장에서 兵官佐平으로 옮겨¹⁸¹⁾ 패전의 책임을 물었다. 眞武를 병관좌평으로 옮긴 것은 형식상으로는 승진이지만 당시 左將이 軍令權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는 진씨로 하여금 兵權에서 손을 떼게 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세력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은 아신왕 사후 전지왕의 즉위 과정에서 일어난 王位繼承戰이었다. 이때 眞氏는 자신의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왕의 동생 磔禮를 옹립하려고 하였고 진씨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解氏 세력은 왜에 인질로 가 있던 腆支를 옹립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왕위계승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지를 지지한 세력이 승리함으로써 전지는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즉위 후 전지왕은 새로이 집권세력을 구성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기사

180) 《三國史記》 권제25 백제본기 아신왕 8년조에 “秋八月 王欲侵高句麗 大徵兵馬 民苦於力 多奔新羅 戶口衰減”이라 한 기사 참조.

181) 《三國史記》 권제25 백제본기 아신왕 7년조에 “春二月 以眞武爲兵官佐平 沙豆爲左將”이라 한 기사 참조.

이다.

春二月 拜庶弟餘信爲內臣佐平 解須爲內法佐平 解丘爲兵官佐平 皆王戚也¹⁸²⁾

이 기사에 의하면 중추적인 직책은 전지왕을 옹립하는데 공을 세운 왕족과 왕비족 解氏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혈레를 지지하였던 진씨세력은 정치일선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새로이 집권한 解氏 세력은 진씨 세력과는 달리 국내의 정치적 질서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해씨 세력으로서의 자신들의 기반도 안정시키고 또 민생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였고 그러기 위해 무리한 군사활동은 자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고구려에서도 장수왕이 즉위한 이후 선왕의 정복정책 대신에 이미 정복한 지역들을 안정되게 다스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장수왕의 평양 천도 추진과 관련되지 않을까 한다. 장수왕은 15년(427)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천도를 위해 장수왕은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면서 천도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억압하여야 하였다.¹⁸³⁾ 또 新首都 건설에는 왕궁과 왕성을 비롯하여 여러 관청들을 조영하기 위해 대규모의 토목공사와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여야 하는 등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였다. 이 때문에 장수왕은 대외정복 활동을 자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백제와 고구려 사이는 일정 기간 동안 小康狀態로 들어가게 되었다.

고구려와의 관계가 일단 小康狀態로 들어간 이 시기에 백제와 왜는 돈독한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전지왕 5년(409)에는 왜가 사신을 파견하여 夜明珠를 보내자 백제는 이들을 優禮하였고,¹⁸⁴⁾ 14년(418)에는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白錦 10필을 보냈다.¹⁸⁵⁾ 그리고 비유왕 2년(428)에는 왜국이 사신을 파견해 왔다.¹⁸⁶⁾ 이는 양국의 우호관계가 대를 이어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시기에 양국이 이처럼 돈독한 우호관계를 가지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였던 것 같다.

182) 《三國史記》 권제25 백제본기 전지왕 3년조

183) 《魏書》 권100 열전88 백제전에 “今瓊有罪 國自魚肉 大臣彊族 戮殺無已 …”라 한 기사 참조.

184) 《三國史記》 권제25 백제본기 전지왕 5년조에 “倭國遣使 送夜明珠 王優禮待之”라 한 기사 참조.

185) 《三國史記》 권제25 백제본기 전지왕 14년조에 “夏 遣使倭國 送白錦十四”이란 기사 참조.

186) 《三國史記》 권제25 백제본기 비유왕 2년조

첫째 전지왕은 8년 동안 倭國에 체류하면서 倭朝廷 내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만들어 두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점은 신라 奈勿王이 고구려에 인질로 보낸 實聖이 고구려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의 지지세력을 확보해 두었다고 한 사실에서¹⁸⁷⁾ 방증이 되지 않을까 한다. 물론 倭朝廷 내에서 腆支를 지지한 세력이 누구였는지는 분명히 하기 어렵지만 전지왕은 이 세력들과 交感함으로써 왜국과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로 전지왕은 즉위 과정에서 왜군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이다. 아신왕이 죽고 왕위계승전이 일어났을 때 왜에 인질로 가 있던 전지는 왜군 10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귀국하였다. 그렇지만 禮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평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入城할 수 없었다. 이에 전지는 한성에서 온 解忠의 충고를 받아들여 海島에 머물면서 倭兵으로 하여금 자신을 호위하도록 하였다. 이 왜군은 당시로서는 전지왕을 호위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지가 즉위과정에서 왜군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은 양국 관계를 두터이 하는데 順機能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

셋째는 전지왕의 부인인 八須夫人이 倭系 출신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전지왕은 아신왕 3년(394)에 태자로 책봉되었고 6년(397)에 왜에 인질로 파견되었다. 이때 전지의 나이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1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¹⁸⁸⁾ 왜냐하면 전지왕의 아버지인 阿莘은 침류왕이 죽었을 때 어리다는 이유로 숙부 辰斯가 왕이 되었는데¹⁸⁹⁾ 침류왕이 죽을 때 아신의 나이가 20세였다고 하더라도 즉위할 무렵의 나이는 27세이고 전지를 태자로 책봉할 당시는 29세를 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10대 초반 경에 왜로 간 전지는 8년간 왜에 체류하였다. 그래서 귀국할 즈음에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지왕이 언제 어디에서 결혼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전지가 즉위한 후 解氏가 王戚으로 나온다.¹⁹⁰⁾ 이는 그가 즉위 후 解氏 出身女를 왕비로 삼은 것을 의미한다. 실권을 장악한 解氏세력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왕실과의 결혼을 추진하였고 국내에서 세력기반이 그다지 없었던 전지왕은 擁立세력인 解氏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解氏女를 왕비로 맞이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렇게 보

187) 이에 대해서는 《三國史記》 권제3 신라본기 눌지마립간 즉위년조에 “及實聖還爲王 … 遣人招在高句麗時相知人 因密告 見訥祗則殺之.”라 한 기사 참조

188) 연민수, 1998 《고대한일관계사연구》 (혜안) 436

189) 《三國史記》 권제25 백제본기 아신왕 즉위년조에 “腆支王 枕流王之元子 … 王薨時年少 故叔父辰斯繼位 八年薨 卽位”라 한 기사 참조

190) 《三國史記》 권제25 백제본기 전지왕 3년조에 “解須爲內法佐平 解丘爲兵官佐平 皆王戚也”라 한 기사 참조

면 八須夫人을 解氏 출신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지왕 즉위년조에는 “妃八須夫人 生子久爾辛”이라 하여 이해에 八須夫人이 久爾辛을 낳은 것으로 나온다. 이는 팔수부인이 解氏 출신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지왕이 즉위 후 解氏女와 결혼하였다면 이해에 解氏女가 出産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지왕에게는 八須夫人과 解氏女라고 하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解氏女는 전지왕이 즉위 후 맞이한 것이 분명하므로 八須夫人은 전지왕이 즉위하기 전에 결혼한 것이 된다.

이를 추론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전지왕의 아들이다. 전지왕의 아들로 久爾辛과 毗有가 있었다. 《삼국사기》에는 毗有의 출자에 대해 본문에서는 久爾辛의 아들로 細注에는 전지왕의 서자라는 설을 수록하면서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¹⁹¹⁾ 그런데 구이신이 즉위할 당시 나이가 16세였고 죽을 당시의 나이는 24세였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유를 구이신의 아들로 보기 어렵다. 때문에 비유는 전지왕의 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⁹²⁾ 그렇다고 하면 전지왕에게는 구이신과 비유 두 아들이 있었던 셈이 되는데 구이신은 팔수부인의 소생이므로 비유는 解氏女의 소생이라 할 수 있다.¹⁹³⁾

이렇게 볼 때 팔수부인은 전지가 왜국에서 맞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日本書紀》에는 八須夫人처럼 이름에 ‘八’자가 들어간 인물이 있다는 점이다. 仁德의 배다른 동생으로서 仁德의 繼妃가 된 八田皇女와¹⁹⁴⁾ 履中에게 딸 黑媛을 시집보낸 隅田八代宿禰가¹⁹⁵⁾ 그 예가 된다. 특히 八田皇女の 존재는 八須夫人이 倭系일 가능성을 크게 한다.¹⁹⁶⁾ 그렇다고 하면 전지는 왜에서 팔수부인을 맞이하였고 귀국할 때 이 부인을 데리고 왔을 것이다. 그리고 즉위 후 얼마 되지 않아 八須夫人에게서 구이신왕이 태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추론이 성립된다고 하면 팔수부인의 존재는 전지가 왜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일정한 順作用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소생인 구이신왕이 즉위한 이후에도 이러한 돈독한 관계는 그대로 지속되

191) 《三國史記》 권제25 백제본기 비유왕 즉위년조에 “毗有王 久爾辛王之長子(或云腆支王庶子 未知孰是)”라 한 기사 참조

192) 이기백, 1959 <백제 왕위계승고> 《역사학보》 11집 (역사학회)
이도학, 1985 <한성말 웅진시대 백제왕위계승과 왕권의 성격> 《한국사연구》 50·51합 (한국사연구회)

193) 毗有王을 解氏女 소생이라고 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비유가 전지왕의 庶子로 나온다는 점이다. 이는 解氏女가 正妃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194) 《日本書紀》 권제11 仁德紀 21년조

195) 《日本書紀》 권제10 應神紀 3년조

196) 팔수부인이 왜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김기섭 선생님의 교시를 받았다.

어 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왜는 413년에 東晉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왜가 동진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를 공격하였다가 크게 패배한 이후 새로운 대외 전략을 모색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이때 백제는 왜와 동진과의 교섭을 주선하거나 통역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볼 때 5세기에 백제와 왜의 관계는 우호적 관계이지 支配와 服屬의 관계는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2. 新羅와 倭의 關係

1) 《삼국사기》 對倭衝突 關係 기사 분석

《삼국사기》에 신라와 왜의 관계는 赫居世 8년(서기전 50)조의 기사가 처음이다. 그러나 양국관계는 혁거세 8년조에

倭人行兵 欲犯邊 開始祖有神德 乃還¹⁹⁷⁾

이 한 기사에서 보듯이 처음부터 침략적인 관계로 시작되고 있다. 이후 양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은 되풀이되고 있다. 이제 5세기를 중심으로 신라와 왜의 충돌 관계 기사를 《삼국사기》에서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 奈勿王 38년(393) : 夏五月 倭人來圍金城 五日不解 將士皆請出戰 王曰 今賊棄舟深入 在於死地 鋒不可當 乃閉城門 賊無功而退 王先遣勇騎二百 遮其歸路 又遣步卒一千 迫於獨山 夾擊大敗之 殺獲甚衆
- 實聖王 원년(402) : 三月 與倭通好 以奈勿王子未斯欣爲質
4년(405) : 夏四月 倭兵來攻明活城 不克而還 王率騎兵 要之獨山之南 再戰破之 殺獲三百餘級
6년(407) : 春三月 倭人侵東邊 夏六月 又侵南邊 奪掠一百人
12년(413) : 八月 與倭人戰於風道 克之
- 訥祗王 15년(431) : 夏四月 倭兵來侵東邊 圍明活城 無功而退
24년(440) : 倭人侵南邊 掠取生口而去 夏六月 又侵東邊
28년(444) : 夏四月 倭兵圍金城十日 糧盡而歸 王欲出兵追之 左右曰 兵家之說曰 窮

197) 《三國史記》 권제1 신라본기 혁거세왕 8년조

- 寇勿追 王其舍之 不聽 率數千餘騎 追及於獨山之東 合戰爲賊所敗 將士死者過半 王蒼黃棄馬上山 賊圍之數重 忽昏霧 不辨咫尺 賊謂有陰助 收兵退歸
- 慈悲王 2년(459) : 夏四月 倭人以兵船百餘艘 襲東邊 進圍月城 四面矢石如雨 王城守賊將退 出兵擊退之 追北至海口 賊溺死者過半
 - 5년(462) : 夏五月 倭人襲破活開城 虜人一千而去
 - 6년(463) : 春二月 倭人侵歙良城 不克而去 王命伐智德智 領兵伏候於路 要擊大敗之 王以倭人屢侵疆場 緣邊築二城
 - 19년(476) : 夏六月 倭人侵東邊 王命將軍德智擊敗之 殺虜二百餘人
 - 20년(477) : 夏五月 倭人舉兵 五道來侵 竟無功而還
 - 昭智王 4년(482) : 五月 倭人侵邊
 - 8년(486) : 夏四月 倭人犯邊
 - 19년(497) : 夏四月 倭人犯邊
 - 22년(500), 지증왕 1년(500) : 春三月 倭人攻陷長峰鎮

이 기사들은 4세기말에서 5세기말까지 신라와 왜의 관계는 왜가 주로 공격해 오고 여기에 대응하여 신라가 왜군을 물리치는 형태였음을 보여준다. 왜인이 신라를 侵掠하였을 때 그 기간이 제일 긴 것이 10日間이었고(訥祗王 28년조), 兵船의 수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100餘隻이고(慈悲王 2년조), 왜인들이 거둔 戰果 가운데 큰 경우는 1千餘名을 포로로 잡아간 것이다(慈悲王 5년조). 이는 왜군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왜인이 공격한 곳은 金城이 1회, 明活城이 1회, 月城이 1회이고 나머지는 東邊 또는 南邊으로 표기되거나 犯邊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는 왜인이 주로 변경지역을 침략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왜인들의 신라 침략은 掠奪的인 성격의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는 왜인의 빈번한 侵入을 拔本塞源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 왜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기사이다.

- D-1 春 王謂臣下曰 倭人累犯我城邑 百姓不得安居 吾欲與百濟謀 一時浮海 入擊其國 如何 舒弗那弘權對曰 吾人不習水戰 冒險遠征 恐有不測之危 況百濟多詐 常有吞噬我國之心 亦恐難與同謀 王曰善¹⁹⁸⁾
- D-2 春二月 王聞倭人於對馬島置營 貯以兵革資糧 以謀襲我 我欲先其未發 揀精兵擊破兵儲 舒弗那未斯品曰 臣聞兵凶器 戰危事 況涉巨浸以伐人 萬一失利 則悔不可追 不若依險設關 來則禦之 使不得侵猾 便則出而禽之 此所謂致人而不致於人 策之上也 王從之¹⁹⁹⁾

198) 《三國史記》 권제2 신라본기 儒禮尼師今 12년(259)조

199) 《三國史記》 권제3 신라본기 實聖尼師今 7년(408)조

D-1은 3세기 중반경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신라가 백제와 더불어 왜국의 본토를 공격하려고 계획한 것이다. 이 공격 계획의 특징은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하나는 ‘入擊其國’에서 보듯이 침략해오는 왜인의 背後根據地가 되는 倭의 본토를 공격하려고 한 것이다. 왜 본토를 공격하려면 수군을 조련하고 병선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기사이다.

夏五月 聞倭兵至 理舟楫 繕甲兵²⁰⁰⁾

이 기사에 의하면 신라는 이전부터 왜병의 침입에 대비하여 병선을 수리하고 군사를 훈련하고 무기를 수선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儒禮王은 바다를 건너 왜의 본토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백제와의 합동 작전을 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신라와 백제와의 관계를 보면 미추왕대에는 백제가 신라를 빈번히 공격해 왔다.²⁰¹⁾ 그러나 유례이사금 3년에 ‘春正月 百濟遣使請和’라 한 기사에서 보듯이 양국 사이에 和好가 맺어졌다. 이렇게 화호가 맺어진 직후부터 왜인의 신라 공격이 빈번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신라는 백제와 공동으로 왜를 공격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舒弗邯 弘權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신라는 水軍이 약하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 遠征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다는 것이다. 사실 신라는 이제까지 바다를 건너 왜를 공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정의 위험성은 충분히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백제는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여기에는 백제가 비록 동맹국이 되었지만 언제든지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내면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왕은 弘權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계획을 취소하였다. 그 결과 백제와 합동으로 왜의 본토를 공격하려던 계획은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말았다.

D-2는 5세기 초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왜인이 對馬島에 營寨를 세우고 무기와 군량을 저장하여 침략해 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대마도를 공격하려고 한 것이다. 대마도는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동시에 왜가 신라를 공격하려고 할 때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였다. 여기에 왜인은 군량과 무기를 저장한 후 신라를 침략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신라는 이곳을 공격하여 이들의 침략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舒弗邯 未斯欣이 바다를 건너 공격하는 것의 위험성을

200) 《三國史記》 권제3 신라본기 유례이사금 6년조

201) 《三國史記》 권제3 신라본기 미추이사금 5년·11년·17년·22년조 참조

들어 반대함으로써 역시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신라의 왜군에 대한 대응책은 험지에 관문을 설치하여 막는 방어위주로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작전은 補給品 調達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왜인의 가장 큰 취약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그래서 신라는 慈悲王이

王以倭人屢侵疆場 緣邊築二城²⁰²⁾

이라 한 기사에서 보듯이 변경에 축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왜병이 침략해 오면 성문을 닫아걸고 적군의 양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려 공격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작전을 통해 신라는 왜인의 공격을 모두 격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나물왕 38년(393)조에 ‘殺獲甚衆’, 실성왕 4년(405)조에 ‘殺獲三百餘級’, 눌지왕 15년(431)조의 ‘無功而退’, 자비왕 2년(459)조에 ‘賊溺死者過半’, 자비왕 6년(463)조에 ‘要擊大敗之’, 자비왕 19년(476)조에 ‘殺虜二百餘人’, 자비왕 20년(477)조에 ‘竟無功而還’ 등은 왜인이 입은 피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왜인은 비록 신라를 빈번히 침략해 왔지만 모두 격퇴되었으며 한번도 신라를 군사적으로 굴복시킨 적이 없었다. 나아가 신라는 왜인의 침략을 拔本하기 위해 왜군의 前哨基地인 對馬島뿐만 아니라 왜의 本土도 직접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만약 왜가 신라에 대한 軍事權을 장악하고 있었다면 신라가 倭를 공격하려는 계획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시기에 倭五王이 신라에 대한 군사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2) 新羅의 人質 派遣

4세기말에서 5세기에 들어와 신라의 對倭관계에서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의 하나가 인질의 파견이다. 그러면 무슨 까닭으로 이 시기에 신라가 왜에 人質을 파견한 것일까. 그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 다음의 기사이다.

E-1 朴堤上(一云毛末) … 堤上仕爲敵良州干 先是 實聖王元年壬寅(402) 與倭國講和 倭王請以奈勿王之子末斯欣爲質 王嘗恨奈勿王使己質於高句麗 思有以釋憾於其子 故不拒而遣之²⁰³⁾

202) 《三國史記》 권제3 신라본기 자비마립간 6년(463)조

203) 《三國史記》 권제45 열전제5 朴堤上傳

E-2 那密王即位三十六年庚寅 倭王遣使來朝曰 寡君聞大王之神聖 使臣等以告百濟之罪於大王也 願大王見一王子 表誠心於寡君也 於是王使第三子美海(一作未吐喜) 以聘於倭²⁰⁴⁾

위의 자료 E-1은 신라가 美海=未斯欣을 왜에 인질로 보낸 것은 국내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의 정치적 力學관계는 實聖王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實聖은 고구려에 인질로 갔다가 9년 만에 돌아왔다. 그리고 이듬해에 奈勿王이 죽자 왕위를 계승하였다. 나물왕에게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성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일종의 정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實聖王에게는 나물왕의 아들들은 잠재적인 競爭세력이었다. 때문에 실성왕은 奈勿王의 아들들을 제거하여야 정치적 안정과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다. 이점은 實聖王이 고구려에 인질로 있을 때 알고 지내던 자들을 동원하여 나물왕의 아들 訥祗를 제거하려고 하였다는 것에서도²⁰⁵⁾ 입증되리라 본다. 그래서 實聖王은 未海=未斯欣을 倭에 보냄으로써 나물왕에 대한 보복도 하고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이중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E-2는 신라의 인질 파견이 대외적인 외교활동의 하나로 행해진 것을 보여준다. 이 기사에 의하면 왜왕이 백제의 罪를 고하면서 誠心을 표하기를 요청하자 신라는 그 요청에 응해 美海를 인질로 보냈다고 한다. 이때 왜왕이 고했던 百濟의 罪란 다름 아니라 신라를 공격하려는 백제의 계획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백제의 이러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신라는 일차적으로 親고구려 정책을 취하였다. 實聖이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진 것과 또 卜好가 인질로 보내진 것도 이러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⁶⁾ 동시에 신라는 對倭외교도 추진하여 왜가 백제를 돕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 百濟상전에 나오는 다음의 기사이다.

堤上 … 遂徑入倭國 若叛來者 倭王疑之 百濟人前入倭 讖言新羅與高句麗謀侵王國 倭遂

204) 《三國遺事》 권제1 기이 제1 奈勿王 金堤上조

205) 《三國史記》 권제3 신라본기 눌지왕 즉위년조에 “… 奈勿王三十七年 以實聖質於高句麗 及實聖還爲王 怨奈勿質已於外國 欲害其子以報怨 遣人招在高句麗時相知人 因密告見訥祗 則殺之 遂令訥祗往逆於中路 麗人見訥祗 形神爽雅 有君子之風 遂告曰 爾國王使我害君 今見君 不忍賊害 乃歸 訥祗怨之 反弑王自立”이라 한 기사 참조

206) 이는 《三國遺事》 권제1 기이 제1 나물왕 김제상조 “至訥祗王即位三年己未 句麗長壽王遣使來朝云 寡君聞大王之弟寶海 秀智才藝 願與相親 特遣小臣懇請 王聞之幸甚 因此和通 命其弟寶海 道於句麗 以內臣金武謁爲輔而送之 長壽王又留而不送”이라 한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遣兵 邏戍新羅境外 會高句麗來侵 并擒殺倭邏人 倭王乃以百濟人言爲實²⁰⁷⁾

이 기사에 의하면 이 시기 왜에는 百濟人도 들어오고 新羅人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가운데 백제인의 정보는 신라가 고구려와 더불어 왜를 침략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정보에 따라 왜는 신라의 邊境에 대한 巡邏를 강화하였는데 때마침 고구려가 내침하여 왜의 巡邏人을 잡아죽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왜왕으로 하여금 백제인의 말을 믿도록 하게 하였다.

왜왕이 백제인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왜와 백제와의 관계가 그만큼 돈독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역으로 왜가 신라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박제상을 미사흔을 귀환시키기 위해 왜로 갈 때 반란을 도모하였다가 도망해 온 것처럼 가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놀지왕도 왜가 박제상을 믿도록 하기 위해 미사흔과 박제상의 가족을 감옥에 가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신라는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왜의 입장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왜와의 信賴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신라는 왜왕이 왕자 한 사람을 보내어 聖心을 표시해 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지 않고 미사흔을 왜로 보냈던 것이다.²⁰⁸⁾

신라가 이러한 외교책을 취하게 된 것은 당시 한반도가 삼국으로 분열되어 갈등과 대립이 심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대립과 갈등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신라는 自存을 도모하여야 하여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라는 靚고구려 정책을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왜로 하여금 백제를 돕지 못하도록 하는 外交作戰을 펼쳤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신라의 人質 파견은 삼국의 鼎立에서 벗어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외교적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신라가 박제상을 통해 未斯欣을 귀국시킨 것은 더 이상 왜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라가 왜에 인질을 파견한 것을 근거로 하여 신라가 왜의 屬國이라든가 왜의 군사적 지배를 받은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07) 《三國史記》 권제45 열전제5 朴堤上傳

208) 신라의 왜로의 인질파견과 박제상에 대해서는 주보돈, 1998 <박제상과 5세기 초 신라의 정치 동향> 《경북사학》 21집 (김엽박사 정년기념특집호, 경북대학교 경북사학회) 참조

IX. 倭王 自稱號의 性格－맺음말에 대신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왜왕은 송에 대해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이나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將軍倭國王’을 자칭하면서 정식으로 인정해 주기를 요청하였지만 송은 백제가 빠지고 加羅가 포함된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倭國王’만을 승인해 주었다. 왜왕의 자칭호가 보여주는 특징은 도독제군사호 속에 倭國 외에 한반도에 위치한 여러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타국을 제군사호 속에 포함시켜 자칭한 것은 왜왕의 경우가 유일하다. 그러면 倭五王이 한반도 남부지역에 위치한 국들을 포함한 제군사호를 자칭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당시 왜가 처한 국내적 상황 및 국제적 상황과 연관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韓半島諸國을 포함하고 있는 왜왕의 자칭호는 왜왕이 倭國 內에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성격도 강하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4세기 이후 일본열도의 정치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호족연합정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정권에서는 대화세력이 비록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였지만 각 지역에는 지역세력들이 근거하여 독자성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5세기에 들어오면서 대화세력에 의한 일본열도의 통합 움직임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武의 상표문에 祖父대에 와서 東征·西服·渡平海北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를 말해 주는 것이다. 이리하여 大和왕권의 위상은 보다 격상되었다. 奈良분지와 大阪평야에 축조된 前方後圓墳의 규모가 가장 크고 숫자도 많다고 하는 것이 이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에 대화왕권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일본열도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정하게 교섭을 가지고 있었던 한반도제국도 마치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것처럼 과시하려 하였고 그 방법으로 왜왕은 자칭호에 韓半島 諸國의 국명을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한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對外交易權의 장악과 관련한 측면이다. 日本列島에서의 對外交渉을 보면 3세기 중반까지는 30餘國이 魏와 통교한 것으로 나온다.²⁰⁹⁾ 이는 邪馬臺國이 당시로서는 倭諸國 가운데 가장 세력이 컸지만 個別國들의 독자적인 대외 교섭 활동을 완전히 규제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倭는 3세

209) 《三國志》 동이전 왜전에 “舊百餘國 漢時有朝見者 今使譯所通三十餘國”이라 한 기사 참조

기 후반 이후 5세기초에 이르기까지 중국과의 교섭을 단절하였다. 때문에 이 시기 왜의 주된 對外교섭대상은 韓半島 諸國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왜는 선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백제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이 시기에 백제가 문화적 선진국이었다는 것은 《日本書紀》 神功紀의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時百濟肖古王深之歡喜 而厚遇焉 仍以五色綵絹各一匹 及角弓箭并鐵鋌卅枚 幣爾波移 便復開寶藏 以示諸珍異 曰吾國多有是珍寶 欲貢貴國 不知道路 有志無終²¹⁰⁾

이 기사에 나오는 五色綵絹, 角弓箭, 鐵鋌 등과 창고에 쌓아둔 보물 등은 백제의 문화수준을 가늠하게 하며 이러한 선진문물은 왜에게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諸國 가운데 특히 백제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倭政權에게는 경제적 부의 축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권의 권위 자체를 크게 높이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4세기에 들어와서도 倭政權은 일본열도에 대한 통합을 아직 이룩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韓半島 諸國과의 교역은 각 지역의 有力한 豪族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행해지기도 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은 5세기에 들어와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왜왕 珍과 濟가 일본열도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大和세력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각 지역의 호족세력들에 대한 통제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게 되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日本列島の 諸勢力과 한반도 諸勢力과의 경제적·문화적 교섭과 교류는 점차 大和세력 중심으로 재편되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大和세력은 對外교섭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만이 한반도 諸國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여타 호족들은 자신을 통해서만 한반도 諸國과의 교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대화정권은 자신의 이러한 권한을 倭國內의 여러 호족세력들에게 보여주려 하였고 그 徵標로서 왜왕은 자신이 마치 한반도 諸國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自稱號를 칭하지 않았을까 한다.²¹¹⁾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210) 《日本書紀》 권9 神功紀 49년조.

211) 이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七支刀를 만들어 왜에 보내 對倭交易權의 장악을 분명히 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즉 칠지도를 통해 백제왕은 국내의 여러 세력들에게 왜왕은 백제의 侯王이므로 왜와의 교섭은 백제왕실을 통해야만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대외적으로는 왜왕으로 하여금 한반도 제국과의 교역과 교섭은 백제왕실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려고 하였던 것 같다. 이렇게 보면 倭五王이 韓半島 諸國이 포함된 자칭호를 칭하면서 송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려고 한 것은 백제왕이 중국으로부터 작호를 받고 또 왜왕을 侯王으로 일컫는 것을 모방하여 자기중심적으로 再構成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왕은 자신의 대외교섭권 장악의 淵源을 邪馬臺國 시기까지 올리려는 의도에서 한때는 邪馬臺國과 교섭을 가졌지만 이 시기에는 이미 소멸된 秦韓과 慕韓을 자칭호 속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自稱號가 가지는 對外政治的인 측면에서의 성격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고구려의 동향이다. 광개토태왕비문에서 보듯이 백제와 왜는 연합하여 고구려와 싸웠지만 모두 패배하고 말았다. 이후 백제는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세계에서 고구려를 고립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백제는 왜 및 가야세력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433년에 나제동맹을 결성하였다.²¹²⁾ 백제가 종래 親고구려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신라와 동맹을 맺은 것은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추진한 남진정책이 백제뿐만 아니라 신라에도 큰 압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어쨌던 백제는 신라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고구려를 고립화시키려는 정책이 일단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의 왜도 武의 상표문에서 보듯이 고구려에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왜는 백제와 우호관계를 가지면서 백제의 고구려에 대한 포위망 구축에 일정하게 참여하였다. 그렇지만 왜는 고구려에 대한 포위망 구축과 고립화에는 백제와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신라와 임나가라 등을 포함한 연합세력의 주축을 놓고는 서로 경쟁하는 입장을 가졌던 것 같다.²¹³⁾ 바로 이 시기에 왜왕 珍은 백제와 신라를 비롯한 韓半島諸國이 포함된 자칭호를 칭하였던 것이다. 이는 백제 중심의 外交網 구축을 마치 왜왕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5세기 왜왕권은 자신의 권위를 대내적으로 과시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백제와 우호관계를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그보다 우위에 서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왜는 자신의 권위 과시와 주장에 대한 信賴性을 附加하기 위해 對宋 외교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백제를 비롯하여 한반도 諸國이 포함된 자칭호를 송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하였다. 그렇지만 송은 왜왕의 자칭호를 승인해 줄 때도 자신이 이미 작호를 수여한 백제가 빠져 있을 때만 都督六國諸軍事號를 승인해 주었다. 이는 송이 왜왕의 자칭호가 가지는 形式性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왜왕의 자칭호가 가지는 성격을 이렇게 파악하면 이 자칭호를 근거로 하여 왜왕이 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 등 6國을 ‘실제 軍事的으로 支配하였다’고 하거나 또

212) 《三國史記》 권제25 백제본기 비유왕 8년조에 “春二月 遣使新羅 送良馬二匹 秋九月 又送白鷹 冬十月 新羅報聘以良金明珠”라 한 기사 참조

213) 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주보돈교수의 교시를 받았다.

는 ‘支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거나 ‘倭의 韓半島 進出’ 또는 ‘倭의 任那經營’을 云謂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논증해 온 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왜왕 진이 438년에 자칭한 장군호는 安東大將軍이었다. 이때 고구려왕은 정동대장군을, 백제왕은 진동대장군을 받고 있었다. 안동대장군은 정동대장군이나 진동대장군보다 격이 낮다. 이 시기 백제와 왜의 접촉 관계에서 미루어 볼 때 왜는 백제가 송으로부터 진동대장군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왜가 백제를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면 진은 마땅히 鎮東大將軍보다 격이 높은 장군호를 자칭하여야 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珍은 鎮東大將軍 보다 낮은 安東大將軍을 자칭하였던 것이다. 또 왜왕이 송으로부터 받은 작호는 珍에서 興까지는 3품인 안동장군이었다. 반면에 백제는 진동장군이거나 진동대장군이였다. 만약 왜왕이 백제를 실제로 군사적으로 지배하였다면 왜왕은 3품의 안동장군의 작호를 거절하던가 아니면 송에 대해 마땅히 강력히 항의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는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安東將軍號를 수용하였던 것이다. 왜왕의 이러한 행위는 왜왕 스스로가 백제보다 지위가 낮다는 것을 自認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왜왕 珍의 경우 자칭호 속에 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은 있지만 加羅는 없다. 제군사호가 군사적 지배권을 의미한다고 하는 해석을 따른다면 왜는 자칭호 속에 포함되지 않은 가라에 대해서는 군사적 지배를 하지 못한 것이 된다. 또 濟와 武는 자칭호 속에서 백제를 스스로 빼고 나서야 송으로부터 加羅가 포함된 六國諸軍事號를 승인받았다. 백제가 빠졌다는 것도 백제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加羅를 지배하지도 못하고 또 왜왕 스스로가 자칭호 속에서 백제를 뺐다는 것은 왜가 백제·신라·임나 등 한반도제국을 지배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왜왕의 自稱號 속에 나오는 한반도 諸國 가운데 백제를 제외하고 신라와 임나 또는 가라는 이때까지 송과 교섭을 한 적이 없었다. 즉 송은 이러한 나라들이 있는지도 몰랐다. 또 秦韓과 慕韓은 4세기 중·후엽에는 신라와 백제에 의해 병합되어 이미 소멸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은 이러한 나라들이 포함된 왜왕의 자칭호를 승인해 주었다. 따라서 송은 자신과 전혀 교섭이 전혀 없어 존재 여부도 몰랐던 나라들과 이미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왜의 군사권 행사를 승인해 준 셈이 된다. 이는 승인 자체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이며 冊封外交가 가지는 形式性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다.

넷째 《송서》 왜국전에 나오는 渡平海北의 대상지역은 한반도가 아니라 九州지역

이라는 점이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西服衆夷의 대상지역을 本州와 九州로 보고 海北을 한반도로 比定하여 왔다. 그러나 《삼국지》 倭傳에서 보듯이 이 시기의 地理觀은 日本列島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日本書紀》 神代 上에 나오는 海北은 구주를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海北의 海는 瀬戶內海를 말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海北은 바로 九州지역이었던 것이다. 이 九州지역에 대한 정복은 5세기 중엽경이 되어야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일본열도도 아직 통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왕이 한반도 諸國에 대해 軍事權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다섯째 왜왕 武의 상표문에 나오는 邊隸에 대해 종래에는 백제 내지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 것일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邊隸는 송이 왜왕 흥의 책봉한 조서에 나오는 ‘新嗣邊業’에서 미루어 볼 때 왜가 송에 대해 자국을 낮추어 표현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抄略한 이 邊隸는 송으로 가던 왜의 遣使船과 商團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邊隸를 百濟 내지 韓半島諸國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아 왜가 고구려에 대항하면서 한반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볼 수 없는 것이다.

여섯째 왜왕 武의 上表文에 나오는 祖禰는 왜왕 武의 祖와 父로서 구체적으로는 왜왕 珍과 濟를 말한다. 이들에 의해 東征·西服·渡平海北이라는 征服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그 시기는 대략 430년대에서 460년대 경이다. 이는 역으로 이때까지 倭王權이 일본열도를 아직 통합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5세기 전반까지 일본열도도 통합하지 못한 倭王權이 4세기 중반 경에 韓半島南部諸國을 지배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일곱째 《삼국사기》에 의하면 5세기에 와서 백제와 왜는 몇 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한 기사가 나온다. 이는 腆支王 즉위 이후 백제와 왜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支配-被支配와 같은 정치적 상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한편 왜는 5세기에 들어와서도 신라를 빈번히 공격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은 모두 격퇴되고 말았다. 심지어 신라는 왜병의 침략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倭의 本據地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만약 왜가 한반도 남부지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계획은 도저히 수립할 수 없다. 이는 도리어 왜가 한반도 한반도 남부지역을 군사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文獻目錄】

5세기 한일관계사 관련 참고문헌목록

* 史料

- (중국측) 周禮·三國志·晉書·宋書·南齊書·梁書·南史·翰苑·通典·太平御覽
- (한국측) 三國史記·三國遺事·海東繹史·東輿備攷
- (일본측) 古事記·日本書紀

* 著書(한국측)

- 金錫亨, 1968 《古代朝日關係研究》(사회과학원출판사)
-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博英社)
- 李基白·李基東 1981 《韓國史講座》1 고대편 (一潮閣)
- 金翰奎, 1982 《古代中國的世界秩序研究》(一潮閣)
-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一潮閣)
- 千寬宇, 1991 《加耶史研究》(一潮閣)
-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1 (高句麗·百濟·樂浪編)
-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一潮閣)
- 金鉉球, 1993 《任那日本府研究》(一潮閣)
- 洪元卓, 1994 《百濟와 大和日本の 起原》(구다라인터내셔널)
- 李道學, 1995 《百濟古代國家研究》(一志社)
- 金鍾完, 1995 《中國南北朝史研究 -朝貢·交涉關係를 中心으로-》(一潮閣)
- 李賢惠, 1998 《韓國古代的 生産과 交易》(一潮閣)
- 延敏洙, 1998 《古代韓日關繼史》(혜안)
- 盧泰敦, 1999 《高句麗史研究》(사계절)

* 著書(일본측)

- 藤間生大, 1968 《倭の五王》(岩波書店)
- 板橋旺爾, 1973 《奴國發掘》(學生社)
- 大谷光男, 1974 《研究史 金印 -漢委奴國王印-》(吉川弘文館)
- 笠井倭人, 1977 《研究史 倭の五王》(吉川弘文館)
- 岡田英弘, 1977 《倭國》(中公新書)

-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日本と朝鮮》(吉川弘文館)
- 原島禮二, 1979 《倭の五王とその前後》(塙書房)
- 坂元義種, 1981 《倭の五王》(教育社)
- 山尾幸久, 1983 《日本古代王權形成史研究》(岩波書店)
- 近藤義郎, 1983 《前方後圓墳の時代》(岩波書店)
- 原島禮二・石部正志・今井堯・川口勝康, 1983 《巨大古墳と倭の五王》(青木書店)
- 田村圓澄・小田富士雄・山尾幸久 共著, 1985 《古代最大の内戦 磐井の亂》(大和書房)
- 佐伯有清, 1986 《日本の古代國家と東アジア》(雄山閣出版)
- 山尾幸久, 1989 《古代日朝關係》(塙書房)
- 田中俊明, 1992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吉川弘文館)
- 鬼頭清明, 1994 《大和朝廷と東アジア》(吉川弘文館)
- 高倉洋彰, 1995 《金印國家群時代 -東アジア世界の弥生社會-》(青木書店)
- 高寛敏, 1997 《古代朝鮮諸國と倭國》(雄山閣出版)
- 武光誠・讀賣新聞調査研究本部, 1998, 《魏志倭人傳と邪馬臺國》(讀賣新聞社)
- 笠井俊人, 2000 《古代の日朝關係と日本書紀》(吉川弘文館)
- 熊谷公男, 2001 《日本の歴史》23 大王から天皇へ(講談社)
- 鈴木靖民, 2002 《倭國と東アジア》(吉川弘文館)
- 朝鮮學會, 2002 《前方後圓墳と古代日朝關係》(同成社)

* 論文(한국측)

- 李基白, 1959 <百濟王位繼承考> 《歷史學報》11집 (歷史學會)
- 李道學, 1985 <한성말 웅진시대 백제왕위계승> 《한국사연구》50·51합집
- 李根雨, 1985 <일본서기 임나관계 기사에 관하여> 《청계사학》2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청계사학회)
- 金翰奎, 1985 <남북조시대의 중국적 세계질서와 고대 한국의 막부제> 《韓國古代的 國家와 社會》(一潮閣)
- 李成珪, 1996 <중국의 분열체제모식과 동아시아제국> 《한국고대사논총》8집 (한국고대사회연구소)
- 盧重國, 2001 <가야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朱甫暎, 1998 <막제상과 5세기초 신라의 정치동향> 《慶北史學》21집(金擘막사정년기념특집호, 경북대학교 경북사학회)
- 崔在錫, 1999 <중국사서에 나타난 5세기 왜오왕 기사에 대하여> 《아세아연구》102호(아세아연구회)
- 李鎔賢, 2000 <加羅(大加耶)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과 그 대외교섭> 《한국고대사연구》18

집 (한국고대사학회)

李在碩, 2001 <5세기 왜왕의 대남조외교와 통교단절의 요인> 《일본역사연구》 13집(일본역사연구회)

* 論文(일본측)

坂元義種, 1974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大王の成立をめぐって-> 《古代の日本と朝鮮》 (學生社)

江畑武, 1974 <4-6世紀の朝鮮三國と日本 -中國との冊封をめぐって-> 《古代の日本と朝鮮》 (學生社)

鬼頭清明, 1975 <日本民族の形成と國際的契機> 《大系日本國家史》 (古代, 東京大學出版會)

武田幸男, 1975 <平西將軍 倭隋の解釋 -五世紀の倭國政權にふれて-> 《朝鮮學報》 (朝鮮學會)

池田溫, 1977 <義熙九年倭國獻方物> 《江上波夫教授古稀記念論文集》 歷史篇 (山川出版社)

平野邦雄, 1980 <金石文の史實と倭五王の通交> 《岩波講座 日本歷史》 1 原始および古代 1 (岩波書店)

坂元義種, 1980 <倭の五王の爵號問題 -武の自稱號を中心に-> 《ゼミナル日本古代史》 下 (光文社)

川口勝康, 1981 <五世紀の大王と王統譜を探る> 《巨大古墳と倭の五王》 (青木書店)

坂元義種, 1981 <南北朝諸文獻に見える朝鮮國と倭國>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第3卷 (學生社)

奥田尙, 1982 <倭の五王の倭について> 《追手門學院大學文學部紀要》 16輯 (追手門學院大學文學部)

鈴木靖民, 1985 <倭の五王と內政> 《日本古代の政治と外交》 (續群書類從完成會)

坂元義種, 1986 <大明四年の倭國王> 《政治社會論叢》 (近藤出版社)

正木喜三郎, 1988 <宗像三女神と記紀神話> 《古代を考える沖ノ島と古代祭祀》 (吉川弘文館)

都出比呂志, 1991 <日本古代の國家形成論序説 -前方後圓墳體制の提唱-> 《日本史研究》 343號 (日本史研究會)

川本芳昭, 1992 <4・5世紀の中國と朝鮮・日本> 《新版 古代の日本》 第2卷 (角川書店)

塩澤裕仁, 1993 <宋書にみる倭隋の將軍號> 《法政大學大學院紀要》 第31號 (法政大學)

内田清, 1996 <百濟・倭の上表文の原典につい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 87号 (大和書房)

東潮, 1996 <秦韓과 慕韓> 《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内田清, 1996 <百濟・倭の上表文の原典につい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 86號 (大和書房)

川本芳昭, 1998 <五胡における中華意識の形成と部の制の傳播> 《古代文化》 476號 (大和書房)

- 北條芳隆, 2000 <前方後圓墳의 展開와 그 多様性> 《韓國의 前方後圓墳紀要》 백마학술총서 11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 川崎晃, 2001 <倭王權と五世紀の東アジア -倭王武・百濟王慶と金石文-> 《古代國家の政治と外交》 (吉川弘文館)
- 前之園亮, 2001 <倭の五王・司馬曹達・百濟府官の單名について> 《紀要》 (共立女子短期大學文科)

* 論著(중국측)

- 王健群, 1992 <任那日本府와 倭의 五王> 《加耶文化》 5輯
- 朴眞奭, 1993 《好太王碑와 古代朝日關係研究》 (瑞光學術資料社)

【史料集成】

5세기 한일관계사 관련 문헌 자료

《晉書》 卷10 帝紀10

義熙 9年 冬12月 是歲高句麗倭國及西南夷銅頭大師並獻方物

《太平御覽》 권981 香部1 麝條 所引 《義熙起居注》

倭國獻貂皮及人參等詔賜細筍麝香

《宋書》 卷5 本紀第5 文帝

- 元嘉十五年夏四月己巳以倭國王晉爲安東將軍
- 元嘉二十年是歲河西國高麗國百濟國倭國並遣使獻方物
- 元嘉二十九年秋七月甲辰安東將軍倭王倭濟進號安東大將軍

《宋書》 卷6 本紀第6 孝武帝

- 大明四年十二月丁未倭國遣使獻方物
- 大明六年三月壬人以倭國王世子興爲安東將軍

《宋書》 卷10 本紀第10 順帝

昇明二年五月戊午倭國王無遣使獻方物以無爲安東大將軍

《宋書》 卷97 列傳第57 東夷 倭國傳

倭國在高麗東南大海中 世修貢職 高祖永初二年(421) 詔曰 倭讚萬里修貢 遠誠宜甄 可賜除授 太祖元嘉二年(425) 讚又遣司馬曹達 奉表獻方物 讚死 弟珍立 遣使貢獻 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表求除正 詔除安東將軍倭國王 珍又求除正倭隋等十三人平西征虜冠軍輔國將軍號 詔竝聽 二十年(443) 倭國王濟遣使奉獻 復以爲安東將軍倭國王 二十八年(451) 加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如故 并除所上二十三人軍郡 濟死世子興遣使貢獻 世祖大明六年(462) 詔曰倭王世子興 奕世載忠 作藩外海 稟化寧境 恭修貢職 新嗣邊業 宜授爵號 可安東將軍倭國王 興死弟武立 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

事安東大將軍倭國王 順帝昇明二年(478) 遣使上表曰 封國偏遠 作藩于外 自昔祖禰 躬擐甲冑 跋涉山川 不遑寧處 東征毛人五十五國 西服衆夷六十六國 渡平海北九十五國 王道融泰 廓土遐畿 累葉朝宗 不愆于歲 臣雖下愚 忝胤先緒 驅率所統 歸崇天極 道遙百濟 裝治船舫 而句驪無道 圖欲見吞 掠抄邊隸 虔劉不已 每致稽滯 以失良風 雖曰進路 或通或不 臣亡考濟 實忿寇讐 壅塞天路 控弦百萬 義聲咸激 方欲大舉 奄喪父兄 使垂成之功 不獲一篲 居在諒闇 不動兵甲 是以偃息未捷 至今欲練甲治兵 申父兄之志 義士虎賁 文武效功 白刃交前 亦所不顧 若以帝德覆載 摧此疆敵 克靖方難 無替前功 竊自假開府儀同三司 其餘咸假授 以勸忠節 詔除武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

《宋書》 卷97 列傳第57 東夷 百濟傳

百濟國本與高驪俱齊遼東之東千餘里其後高驪略有遼東百濟略有遼西百濟所治謂之晉平郡晉平縣義熙十二年以百濟王餘映爲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將軍百濟王高祖踐祚進號鎮東大將軍少帝景平二年映遣長史張威詣闕貢獻元嘉二年太祖詔之曰皇帝問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百濟王累葉忠純越海効誠遠王纂戎聿修先業慕義旣彰厥懷亦款浮桴驪水獻琛執贄故嗣位方任以蕃東服勉勵所在無墜前蹤今遣兼謁者閻丘恩子兼副謁者丁敬子等宣旨慰勞稱朕意其後每歲遣使奉表獻方物七年百濟王餘毗復修貢職以映爵號授之二十七年毗上書獻方物私假臺使馮野夫西河太守表求易林式占腰弩太祖竝與之毗死子慶代立世祖大明元年遣使求除授詔許二年慶遣使上表曰臣國累葉偏受殊恩文武良輔世蒙朝爵行冠軍將軍右賢王餘紀等十一人忠勤宜在顯進伏願垂愍竝聽賜除仍以行冠軍將軍右賢王餘紀爲冠軍將軍以行征虜將軍左賢王餘昆行征虜將軍餘暈竝爲征虜將軍以行輔國將軍餘都餘又竝爲輔國將軍以行龍驤將軍沐衿餘爵竝爲龍驤將軍以行寧朔將軍餘流糜貴竝爲寧朔將軍以行建武將軍于西餘婁竝爲建武將軍太宗太始七年又遣使貢獻

《南齊書》 卷58 列傳第39 東夷傳 倭國傳

倭國在帶方東南大海島中 漢末以來立女王土俗已見前史 建元元年進新除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無號爲鎮東大將軍

《南齊書》 卷58 列傳第39 東夷傳 加羅國傳

加羅國三韓種也建元元年國王荷知使來獻詔曰量廣始登遠夷洽化加羅王荷知款關海外奉贄東遐可授輔國將軍本國王

《建康實錄》 南濟 高麗傳

其官位加長史司馬參軍之屬 拜則申一脚. 坐則跪 行則走 以爲恭敬 國有銀山 採爲貨 並人參貂皮 重中國綵纈 丈夫衣之 亦重虎皮

梁 陶弘景 編, 尙志鈞·尙元勝 輯校, 1994, 《本草經集注》(輯校本), 人民衛生出版社

人參 味甘 微寒 微溫 無毒 主補五臟 安精神 定魂魄 止驚悸 除邪氣 明目 開心益智 治腸胃中冷 心腹鼓痛 胸脇逆滿 霍亂吐逆 調中 止消渴 通血脉 破堅積 令人不忘 久服輕身延年 一名人銜 一名鬼蓋 一名神草 一名人微 一名土精 一名血參 如人形者有神 生上黨山谷及遼東 二月 四月八月上旬採根 竹刀刮 曝干 無令見風 茯苓爲之使 惡溲疏 反藜蘆

上黨郡在冀州西南 今魏國所獻即是 形長而黃 狀如防風 多潤實而甘 世用不入服 乃重百濟者 形細而堅白 氣味薄於上黨 次用高麗 高麗即是遼東 形大而虛軟 不及百濟 百濟今臣屬高麗 高麗所獻 兼有兩種 止應擇取之爾 實用並不及上黨者 其爲藥切要 亦與甘草同功 而易蛀蝕 唯內器艸密封頭 可經年不壞 人參生一莖直上 四五葉相對生 花紫色 高麗人作人參讚曰 三椹五葉 背陽向陰 欲來求我 椹樹相尋

(《大觀》 卷6 《政和》 145頁)